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전망

- ▶ 일시 : 2014년 3월 11일(화) 15:00 - 17:00
-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단재홀

인사말 ■ ■ ■

모든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다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한 해 수행한 연구 성과들을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두 차례에 걸쳐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차 발표회에서는 '취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주제로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등 어려운 성장 환경과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청소년집단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아르바이트 청소년 관련 연구는 2014년도에도 후속 연구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연구성과에 기반을 두어 이들 청소년의 삶의 개선을 위한 더 유익한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차 발표회에서는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후기청소년(고졸 비진학) 정책과제,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 방안,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동안 정책관심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청소년정책 대상으로 재조명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정책의 외연을 넓혔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을 통해 16개 시·도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청소년 행복마을 연구는 2022년까지 10년간 수행되는 장기과제로 청소년 행복마을 시범사업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2040년까지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하는 연구는 2개년 연구의 첫 해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수행된 연구결과들이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청소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1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연

세 부 일 정

시 간	진 행 내 용
15:00 ~ 15:10	<p>▣ 개회사</p> <p>– 개회사 : 이재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p>
15:10 ~ 16:30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역량연구실장)</p> <p>▣ 후기 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연구 II</p> <p>▶ 발표자 :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p> <p>▶ 토론자 : 김현주(중앙대학교 교수)</p> <p>▣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p> <p>▶ 발표자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p> <p>▶ 토론자 : 김봉섭(한국정보화진흥원 부장)</p> <p>▣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p> <p>▶ 발표자 : 성은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p> <p>▶ 토론자 : 김경희(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p> <p>▣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p> <p>▶ 발표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p>▶ 토론자 : 전명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p>
16:30 ~ 17:00	▣ 종합토론
17:00	▣ 폐회

목 차

발 표

- ▶ 후기 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연구 II 1
김 지 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27
이 창 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51
성 은 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85
이 경 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1

.....

후기 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 지 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후기 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19세~24세에 해당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자가 절대 다수인 우리사회에서 고졸자로서 당연한 현실과 욕구의 사실(fact)을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의 구성

- 본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를 바탕으로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현실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문으로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 제1부에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구성하였다.
 - 제2장에서는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과 범위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의하고, 우리사회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시대사적 관점에서 논의하며,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접근 방법들을 사회계층화 관점, 사회적 배제 관점, 노동시장이행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고졸 비진학 청소년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 동향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 제3장에서는 이제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 중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들의 추진과정과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전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현황을 세 단계, 즉 교육단계-졸업 및 취업단계-취업 후 단계로 나누어 분류·분석하였다.

- 제4장에서는 「교육통계연보」,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차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 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및 특성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고교 졸업 후 현황을 취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실증모델분석을 통하여 지난 10여 년 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졸업 후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패널 로짓 모델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태조사에 앞서 큰 틀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 제2부에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내용을 구성하였다.

- 5장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및 고졸 비진학 청소년뿐만 아니라 현장전문가, 그리고 고졸 3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접조사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 제6장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 생활 및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경험을 파악하고자, 대학 비진학 사유와 중·고교 재학 중 및 고교 졸업 후에 대한 회고적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모델분석을 통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비진학 사유와 회고적 경험 요인을 분석하였고, 짧은 기간 내 입직과 퇴직을 반복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근로 패턴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고교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학 중퇴자들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일정 비율을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대학 진학 후 중퇴 경험을 결정하는 요인도 분석하였다.
- 제7장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생활 및 의식 실태를 일상생활 환경 특성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및 행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의식 및 향후 계획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모델분석을 통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재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고, 현재의 생활 및 의식의 어떠한 요인이 미래계획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향후 계획의 영향요인을 하위집단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 제3부에는 문헌고찰, 2차 자료 분석,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 제8장에서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와 주요 문제를 통해 밝혀진 **정책욕구**를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전체가 당면한 **공통**의 것, 그리고 취업청소년, 구직 및 진학·취업·창업 준비청소년, 니트청소년 등 **하위집단별**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정책과제 제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하위집단별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심층면접조사 자료와 고등학교 졸업 후 10~15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심층면접조사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책욕구 도출에 현장 전문적 시각과 선경험자의 시각을 더하였다.
 - 제9장에서는 제8장에서 도출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책욕구에 기초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관련 정책이 이들의 정책욕구에 대응하는데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고졸 비진학 청소년과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기본 추진과제**와 **하위집단별**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표 1 연구 추진 방법 총괄표

구분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자	
	취업자	실업자 (구직자)	준비자 (진학·취업·창업)	니트 (NEET)
① 문헌연구	○	○	○	○
① 전문가 자문회의	○	○	○	○
② 질적 조사 I	○(3명)	○(3명)	○(5명)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인사 담당자 ■ 청년유니온 담당자 ■ 특성화고 취업담당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포털사이트 담당자 ■ 청년일자리사업 담당자 ■ 고용센터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학원담당자 ■ 창업지원센터 담당자 ■ 취업학원담당자 ■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담당자 ■ 사회적일자리 지원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백수연대 대표 ■ 두드림존사업담당자 ■ 니트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대표자 ■ 니트 연구자
③ 양적 조사	설문 예비조사	○	○	○
	설문 본조사 (총983명)	○(219명)	○(221명)	○(432명)
④ 질적 조사 II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총16명)	○(3명)	○(2명)	○(8명)
	30대 성인대상 심층면접 (총16명)	○(16명: 비진학자 7명, 후 진학자 9명)		
⑤ 콜로키움 및 워크숍	○		○	○
⑥ 정책협의회	○	○	○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년위원회			

4. 주요결과

1)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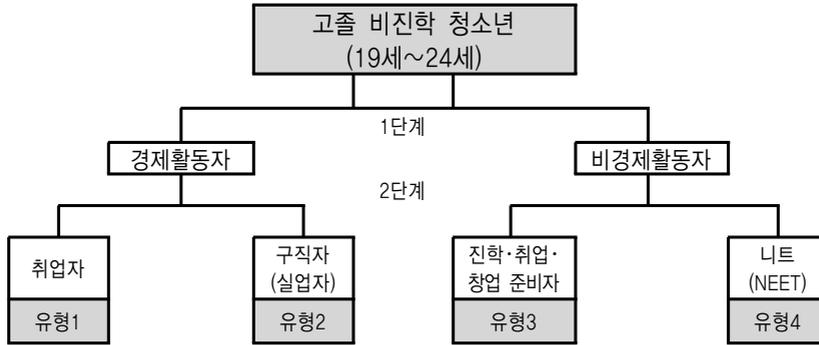
- 정책대상으로서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구분할 때, 그 기준을 학력과 수학여부로 설정할 경우 가장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림-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지 않은 B집단의 순수 고졸자와 전문대학 또는 대학 중퇴자에 해당하는 C집단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해당된다.

		학력 및 계열						
		무학·초등·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예체능계) (특성화계)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수학 여부	졸업	A(중졸이하)	B(고졸: 순수고졸)			E (전문대졸)	F (대졸이상)	G(대졸이상)
	중퇴					C(고졸: 대학 중퇴)		
	휴학		D(대학재학/휴학)					
	재학							

출처 : 윤형한, 신동준(2012),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 p.38에서 수정 재인용

【그림 1】 정책대상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 고찰된 정책대상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24세 청소년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를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경제활동여부와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하위집단(취업자, 비구직자, 진학·취업·창업준비자, 니트(NEET))을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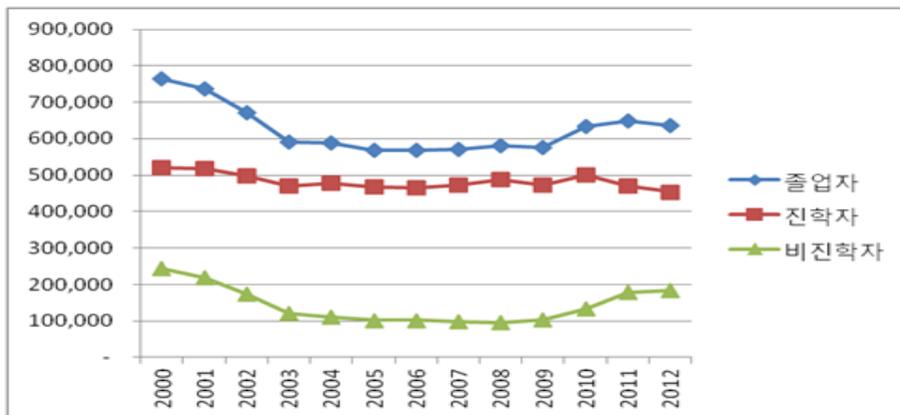


【그림 2】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구성 및 분류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집단의 규모와 현황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변화 추이

교육통계연보 자료 시계열 비교에 따르면, 2000년~2008년 사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1만 5천명 정도의 고졸 비진학자가 증가, 특히 인문계고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3】 고졸 청소년층 진학자와 비진학자 변화추이

○ 고교 졸업 후 현재 상태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고졸 비진학자 전체 중 취업자(68.7%)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진학·취업준비(12.9%)>니트 (12.3%)>구직자 (6.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2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현재 상태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396,021 ^{주)} (100.0)	135,093 (100.0)	174,523 (100.0)	86,405 (100.0)
취업자	272,221 (68.7)	88,580 (65.6)	122,043 (69.9)	61,598 (71.3)
구직자	23,976 (6.1)	8,494 (6.3)	14,714 (8.4)	768 (0.9)
진학/취업준비	51,226 (12.9)	20,774 (15.4)	16,886 (9.7)	13,566 (15.7)
니트	48,598 (12.3)	17,245 (12.7)	20,880 (12.0)	10,473 (12.1)

자료 :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이하 표 동일)
주) 가중치 부여된 수치

○ 지난 10년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 결정 요인

지난 10년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 결정 요인을 패널로짓(Panel Logit) 모델로 분석한 결과,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순수 고졸자가 취업 가능성이 높고, 졸업 후 다소 시간이 경과한 이들이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지난 10년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 결정 요인: Panel Logit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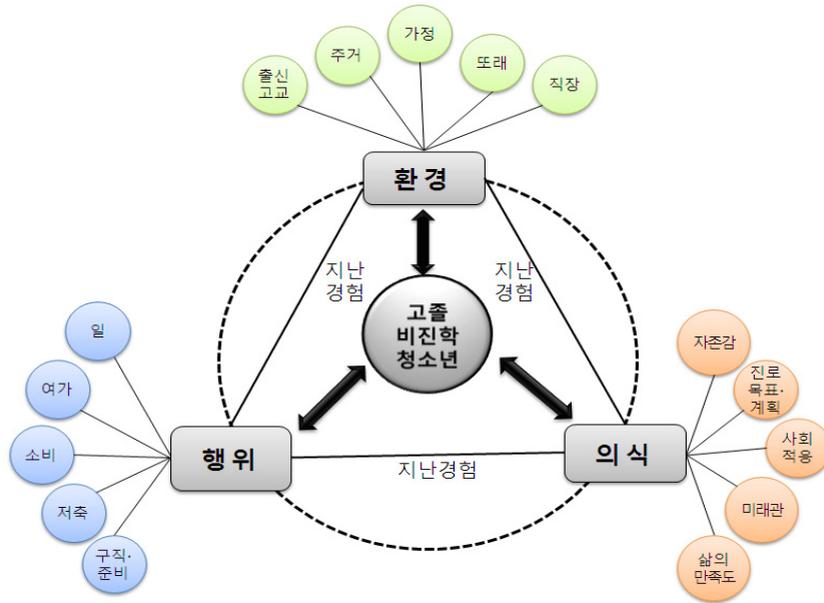
구분	FE(Fixed Effect)	RE(Random Effect)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직업훈련경험유무(직업훈련)	0.34 (0.18)	0.81 (0.15)***
자격증여부(자격증있음)	0.23 (0.18)	0.40 (0.16)*
월평균가구소득(로그)	0.00 (0.09)	0.02 (0.05)
연령	0.56 (0.03)***	0.58 (0.03)***

대학진학경험(비진학)	1.66 (0.34)***	1.45 (0.12)***
결혼여부(기혼유배우자)	-1.68 (0.48)**	-1.91 (0.25)***
가구주 교육년수		-0.06 (0.01)***
가구주 직업지위점수	-	-0.01 (0.05)***
성별		-1.48 (0.11)***
상수	-	-12.38 (0.78)***
/lnsig2u		0.95 (0.10)
sigma_u	-	1.61 (0.08)
rho		0.44 (0.02)
N	2,720	6,317
Group	777	2,558
LR chi ²	337.90***	-
Wald chi ²	-	599.59***
Log likelihood	-853.20	-3350.05

*** p<.001, ** p<.01, * p<.05

3)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의 내용은 크게 ‘행위-의식-환경’을 기본 틀로 하여 [그림-3]과 같이 조사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시간적인 개념을 더하여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경험을 하나의 영역으로 추가 구성하였다.
 - 각 영역의 하위영역은 대략 5가지로 구분하였다. ‘행위’의 하위 영역으로는 일, 여가, 소비, 저축, 구직활동이 포함되었으며, ‘의식’의 하위 영역으로는 자존감, 진로목표, 사회적응, 미래관, 삶의 만족도가 구성되었다. ‘환경’의 하위 영역으로는 출신고교, 가정, 또래, 직장, 주거환경이 포함되었다.
 -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 대한 회고적 경험은 고교 재학 중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이며, 현재 실태는 현재 생활 및 의식에 관한 사실의 발견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4】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

○ 비진학 사유 및 회고적 경험

- **대학 비진학 사유**는 고졸 비진학자의 현재 상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사유로 비진학 한 청소년의 경우 진학준비자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거나 진로 목표나 계획이 없었던 이들은 현재 니트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고교 재학 시 회고적 경험** 중 아르바이트 경험(-), 고교생활만족도(+)**도** 고졸 비진학자의 현재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진학준비나 니트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고, 고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이들은 취업자나 진학준비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교 졸업 후 경험**의 경우 대학 중퇴 유무(-)와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대학 중퇴 경험이 있을 경우 취업자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졸업 후 일자리 경험이 많을수록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니트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 Multinomial Logit Analysis

구분	변수	취업자/구직자	진학준비자/구직자	취업준비자/구직자	창업준비자/구직자	니트/구직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성별(남성)	0.01 (0.20)	0.12 (0.24)	-0.00 (0.22)	0.11 (0.31)	-0.69 (0.26)*
	연령	-0.05 (0.05)	-0.41 (0.07)***	0.04 (0.06)	0.01 (0.08)	0.02 (0.06)
출신 고교 특성	출신고교 유형 (특성화계)	-0.37 (0.22)	-2.27 (0.41)***	-1.30 (0.26)***	-0.57 (0.35)	-0.68 (0.28)*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수도권)	-0.29 (0.19)	0.21 (0.24)	0.13 (0.21)	0.07 (0.30)	0.04 (0.24)
부모 및 가족 특성	사회보호 대상자 (대상자)	0.30 (0.31)	0.23 (0.53)	-0.35 (0.40)	0.32 (0.49)	-0.46 (0.46)
	월평균 부모소득 (로그)	0.02 (0.08)	0.70 (0.17)***	-0.04 (0.09)	0.13 (0.15)	-0.05 (0.10)
대학 비진학 사유	돈벌고 싫어서	0.21 (0.25)	-3.93 (1.03)***	-0.03 (0.29)	0.19 (0.40)	-0.25 (0.35)
	가정형편	-0.00 (0.30)	-2.14 (0.65)**	-0.34 (0.35)	-0.28 (0.55)	-0.08 (0.38)
	대학비희망	-0.27 (0.42)	-2.07 (0.69)**	0.45 (0.40)	1.18 (0.48)*	1.07 (0.41)**
	계획없음 및 기타	0.88 (0.54)	0.84 (0.56)	0.97 (0.57)	1.37 (0.71)	1.75 (0.55)**
고교 재학 중경 험	학업중단 경험 (학업중단)	-0.26 (0.30)	-0.31 (0.37)	-0.64 (0.33)	-0.31 (0.43)	-0.63 (0.38)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0.16 (0.20)	-1.15 (0.25)***	-0.43 (0.22)	0.13 (0.31)	-0.66 (0.25)**
	현장실습 경험 (현장실습)	-0.20 (0.22)	-0.37 (0.30)	0.09 (0.24)	-0.67 (0.37)	-0.47 (0.29)
	고교생활 만족도	0.10 (0.04)**	0.21 (0.05)***	0.03 (0.04)	0.01 (0.06)	-0.03 (0.05)
상수	0.70 (1.37)	4.97 (1.83)**	-0.61 (1.50)	-2.28 (2.14)	0.13 (1.68)	
N	983					
LR χ^2	554.93***					
Pseudo R ²	0.16					
Log likelihood	-1401.26					

*** p<.001, ** p<.01, * p<.05

표 5

졸업 후 경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 Multinomial Logit Analysis

구분	변수	취업자/구직자	진학준비자/구직자	취업준비자/구직자	창업준비자/구직자	니트/구직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성별(남성)	-0.08 (0.26)	0.04 (0.29)	0.12 (0.29)	0.21 (0.39)	-0.40 (0.33)
	연령	-0.04 (0.06)	-0.28 (0.08)**	0.17 (0.07)*	0.04 (0.10)	0.19 (0.07)*
출신 고교 특성	출신고교 유형 (특성화계)	-0.18 (0.20)	-2.43 (0.40)***	-1.17 (0.24)***	-0.69 (0.32)*	-0.82 (0.26)**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수도권)	-0.27 (0.19)	0.18 (0.24)	0.17 (0.22)	0.09 (0.30)	0.08 (0.25)
부모 및 가족 특성	사회보호 대상자 (대상자)	0.24 (0.31)	-0.05 (0.52)	-0.42 (0.41)	0.25 (0.49)	-0.43 (0.46)
	월평균 부모소득 (로그)	0.04 (0.08)	0.76 (0.17)***	-0.04 (0.09)	0.14 (0.15)	-0.06 (0.10)
대학 비진 학사 유	돈벌고 싫어서	-0.18 (0.27)	-4.37 (1.03)***	-0.37 (0.31)	0.11 (0.45)	-0.45 (0.39)
	가정형편	-0.41 (0.33)	-2.49 (0.66)***	-0.70 (0.38)*	-0.32 (0.59)	-0.20 (0.43)
	대학비희망	-0.68 (0.44)	-2.10 (0.69)**	0.17 (0.42)	1.08 (0.53)*	0.95 (0.44)*
	계획없음 및 기타	0.40 (0.54)	0.38 (0.56)	0.57 (0.58)	1.26 (0.74)	1.66 (0.57)**
고교 졸업 후 경험	군입대 유무 (군복무 완료)	0.19 (0.33)	0.74 (0.40)	-0.10 (0.37)	-0.31 (0.52)	-0.46 (0.49)
	대학중퇴유무 (대학중퇴)	-0.68 (0.30)*	-0.19 (0.31)	-0.38 (0.32)	0.11 (0.47)	0.15 (0.38)
	졸업 후 일자리 수	-0.01 (0.03)	-0.39 (0.06)***	-0.21 (0.05)***	-0.01 (0.05)	-0.34 (0.06)***
상수	1.26 (1.51)	3.43 (2.02)	-2.61 (1.66)	-3.13 (2.37)	-3.14 (1.80)	
N	983					
LR χ^2	564.94***					
Pseudo R^2	0.16					
Log likelihood	-1396.25					

*** p<.001, ** p<.01, * p<.05

○ 현재 생활 및 의식 실태

- 의식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보통 수준이하의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특히 니트청소년의 자존감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른 하위집단과 현격하게 차이를 보일 만큼 부정적인 미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의식: 자존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총점(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983(100.0)	31.4(8.1)	2.8(0.7)
하위집단	취업자	219	32.7(7.5)	2.9(0.6)
	구직자	221	29.8(8.2)	2.7(0.7)
	진학준비자	220	34.2(7.7)	3.1(0.7)
	취업준비자	155	29.9(7.6)	2.7(0.6)
	창업준비자	57	32.8(7.9)	2.9(0.7)
	니트	111	27.9(8.4)	2.5(0.7)

표 7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의식: 미래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긍정 응답 비율						
		전체	취업자	구직자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창업준비자	니트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983 (100.0)	62.0	69.4	53.4	78.2	59.4	64.9	34.2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983 (100.0)	72.9	72.1	68.8	85.9	69.7	77.2	59.5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983 (100.0)	66.9	67.1	65.6	71.4	61.9	75.4	63.1
장래에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983 (100.0)	77.6	78.5	71.0	90.0	71.0	91.2	66.7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보통 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83 (100.0)	73.3	79.5	62.4	87.3	66.5	86.0	58.6

구분	사례수	긍정 응답 비율						니트
		전체	취업자	구직자	진학 준비자	취업 준비자	창업 준비자	
나에게 있어서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고 있다.	983 (100.0)	66.8	77.2	58.4	74.1	64.5	86.0	42.3
나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983 (100.0)	82.4	82.2	77.4	95.9	77.4	93.0	67.6
나는 미래에 대한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983 (100.0)	66.3	72.1	54.8	81.4	63.2	80.7	45.0
나는 미래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983 (100.0)	83.1	82.6	79.2	95.0	80.6	84.2	71.2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하위집단별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집단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존감으로 밝혀졌다.

표 8

현재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구분	변수	전체	취업자	구직자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창업준비자	니트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성별 (남성)	0.06 (0.09)	0.38 (0.21)	-0.21 (0.19)	0.19 (0.19)	0.29 (0.24)	0.07 (0.53)	-0.52 (0.37)
	연령	-0.06 (0.02)**	-0.07 (0.05)	-0.15 (0.05)**	0.02 (0.06)	-0.20 (0.06)**	0.13 (0.13)	0.08 (0.08)
학교 특성	출신 고교 유형 (특상화계)	0.21 (0.10)*	0.30 (0.20)	0.25 (0.19)	-0.14 (0.50)	0.20 (0.27)	-0.35 (0.53)	0.08 (0.32)
	출신 고교 소재지 (서울 및 수도권)	-0.15 (0.09)	0.30 (0.19)	0.09 (0.19)	-0.66 (0.19)**	0.02 (0.23)	-0.80 (0.50)	-0.52 (0.31)
부모 및 가족 특성	사회 보호 대상자 (대상자 가구)	-0.08 (0.17)	-0.45 (0.32)	-0.04 (0.30)	-0.04 (0.63)	0.98 (0.47)*	0.31 (0.86)	0.35 (0.67)
	월평균 부모 소득 (로그)	-0.00 (0.04)	-0.01 (0.09)	0.03 (0.08)	0.09 (0.15)	0.22 (0.12)	-0.54 (0.23)*	0.04 (0.14)
	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0.03 (0.13)	0.20 (0.25)	0.07 (0.24)	-0.68 (0.32)*	0.18 (0.35)	-0.95 (0.63)	0.54 (0.46)
	부모 관여도 가족 응집력	-0.02 (0.06)	-0.02 (0.12)	-0.09 (0.12)	0.19 (0.13)	-0.17 (0.17)	-0.10 (0.31)	0.07 (0.20)
		0.32 (0.07)***	0.20 (0.14)	0.36 (0.15)*	0.22 (0.16)	0.39 (0.17)*	0.92 (0.40)*	0.47 (0.24)
	본인 근로 소득 (로그)	-0.01 (0.02)	0.03 (0.12)	-0.04 (0.05)	0.01 (0.07)	0.09 (0.06)	0.24 (0.21)	-
의식	진로 성숙도	0.10 (0.07)	0.10 (0.16)	0.32 (0.15)*	-0.00 (0.17)	0.10 (0.18)	0.20 (0.47)	-0.02 (0.21)
	자존감	1.61 (0.07)***	1.41 (0.16)***	1.62 (0.16)***	1.41 (0.17)***	1.84 (0.20)***	1.08 (0.45)*	1.67 (0.24)***
	미래관	0.13 (0.02)***	0.10 (0.04)*	0.09 (0.04)*	0.26 (0.06)***	0.13 (0.05)*	0.32 (0.15)*	0.06 (0.06)
	사회적 지지	0.34 (0.08)***	0.39 (0.19)*	0.45 (0.16)**	0.50 (0.20)*	-0.09 (0.19)	0.69 (0.48)	0.01 (0.25)
	상수	-0.84 (0.71)	-0.27 (1.62)	0.00 (1.44)	-3.79 (1.72)*	1.07 (1.80)	-5.73 (3.59)	-3.50 (2.30)
	N	983	219	221	220	155	57	111
	F	98.17***	17.36***	28.13***	20.42***	18.45***	6.63***	10.22***
	R ²	0.58	0.54	0.65	0.58	0.64	0.66	0.57
	Adj. R ²	0.58	0.51	0.63	0.55	0.61	0.58	0.52

*** p<.001, ** p<.01, * p<.05

4)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 욕구

○ 고졸 비진학 청소년 공통의 주요 문제 및 정책 욕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학력으로 인하여 일자리 선택 시, 청소년활동과 공모전 등에서의 배제, 창업운영에서의 진입장벽과 네트워크 한계 등 **기회의 제한**을 일상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또한 저학력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들은 **진로선택에 있어 자기 결정을** 강요받고, 전반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 경험에서 **낮은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 하위집단별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 **취업 및 구직청소년의 경우** 군복무, 기초 직무역량 및 사회적응력 부족 등으로 취업 후 **단기퇴사 및 낮은 이직**의 문제를 안고 있고,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고졸 **학력**으로 인하여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하고 **업무를 통한 비전이 부재**한 상황에 놓여 있다.
- **진학·취업·창업 준비청소년의 경우** 진로목표 설정에 있어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주도하지 못하는, 즉 **자기주도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으며, **현실인식과 직무개념의 부재**로 막연한 진로목표의 설정과 준비의 문제가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취약계층에서 발견되었다.
- **니트청소년들은** 무엇을 하던지 **적응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며, 일상의 실패와 부정적 경험의 누적으로 **자존감**은 생성되지 않거나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다. 소비지출을 위한 **근로활동**을 하기는 하나, 필요 소득만을 위한 **짧은 근로와 니트상태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니트청소년의 상당 비율은 **취업과 사회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5. 정책제언

1)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

○ 정책의 세 가지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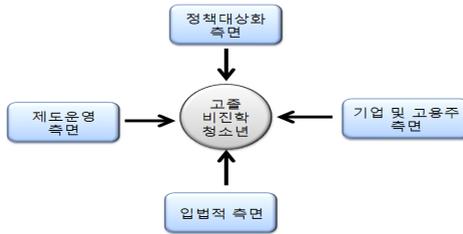
- **통합적 정책(integrated policy)**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중심의 고용정책 틀에서 벗어나 직업교육 등 직업능력개발정책과 취업지원 등 고용정책과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다양한 활동 기회를 포함하는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정책 등 3분야의 정책이 상호 어우러져 융합된 ‘통합적 정책(integrated policy)’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권리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이들을 문제(youth as problem)집단이나 수혜집단으로만 전제하기보다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자원(youth as resource)인 동시에 주요한 이슈에 대한 이해당사자(youth as stakeholder)이며, 문제해결자(youth as problem-solver)이고 변화의 주도자(youth as change agent)로서 인식하는 ‘권리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하위집단별 맞춤형 정책(Subgroup-specific Policy)**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우리사회에 취업자, 구직자, 진학·취업·창업준비자, 니트(NEET)등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된 문제와 더불어 서로 다른 문제와 정책 욕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공통의 일반적 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하위집단별 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2) 추진 과제

- 설정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기본 추진과제와 하위집단별 세부 추진과제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 기본 추진과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과제로서 입법적인 과제와 기존 정책추진체계 또는 인프라를 정비하는 과제들이 주로 해당되며, 고졸 비진학 청소년 공통의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에 대응하는 과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 하위집단별 세부 추진과제는 기본 추진과제와 중복되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구분한

각 하위집단의 주요 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제안한 과제이다.

- 기본과제와 하위집단별 세부과제는 접근하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위치와 이들과 관련된 정책현황,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이들의 주요문제와 정책욕구를 모두 고려하여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분하고 도식화하여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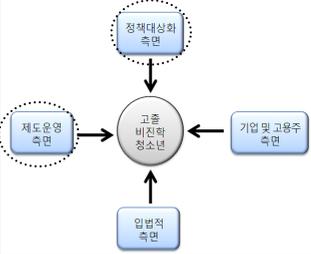
【그림 5】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 추진과제 제안의 네 가지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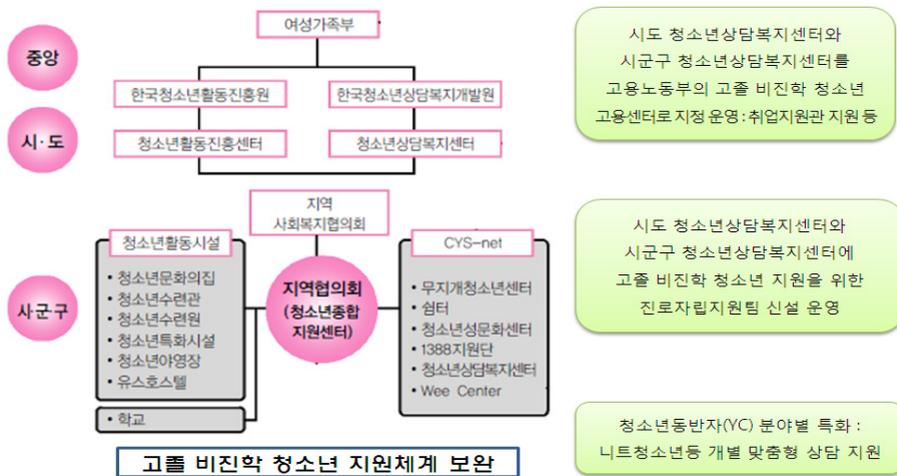
- 기본 추진 과제

-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과제 1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개발 차원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p>정책제안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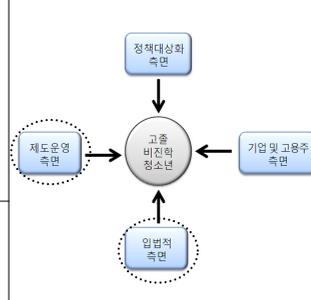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추진과제 2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정책사업 전달체계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포함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p>정책제안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정책의 확대 (V) • 기존정책의 개선 (V) • 신규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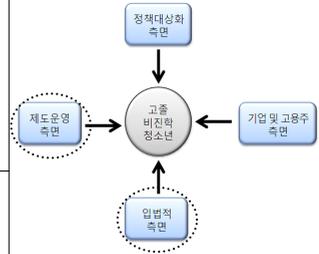
[그림 6]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 추진체계 정비 방안

- 청년고용촉진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칙에 청소년기관 및 단체 포함

추진과제 3	청년고용촉진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칙에 청소년기관 및 단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직업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청소년 개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 직업 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제공(제8조의 3) 관련 기관에 청소년 기관·단체를 포함하고,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제9조)에 반영한다. 	
<p>정책제안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V) • 신규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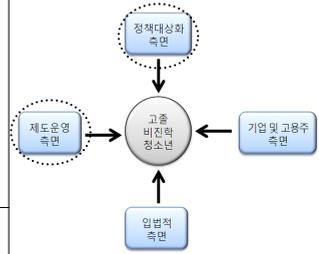
- 청년고용촉진법위원회에 청소년정책 관련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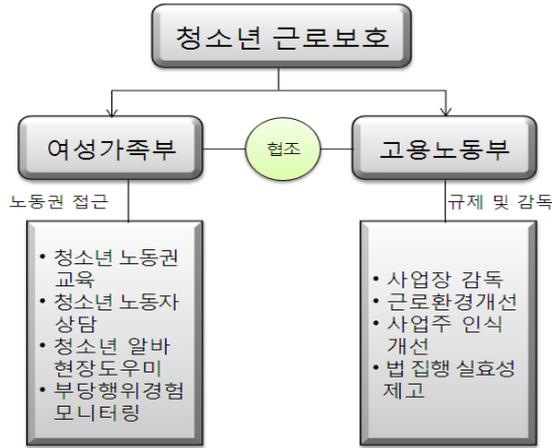
추진과제 4	청년고용촉진법위원회에 청소년정책 관련자 포함
	<p>•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개발,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등 세 분야의 통합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구성에 청소년개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관련 중앙부서와 청소년기관·단체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p>
<p>정책제안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V) • 신규정책 ()



- 고졸 비진학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 추진체계의 이원화

추진과제 5	고졸 비진학 청소년 근로보호정책 대상의 확대와 추진체계의 이원화
	<p>• 현행 10대 청소년(15세~19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중심의 청소년근로보호 정책은 20~24세 후기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의 낮은 부당행위 대처방법의 인지도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근로보호 정책 대상을 24세까지 확대하고 현행 고용노동부 중심의 근로보호정책 추진 체계를 사업장 대응 감독 및 규제체계와 청소년 대응 교육·상담 및 지원 체계로 이원화하여 실효성을 높인다.</p>
<p>정책제안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정책의 확대 (V) • 기존정책의 개선 (V) • 신규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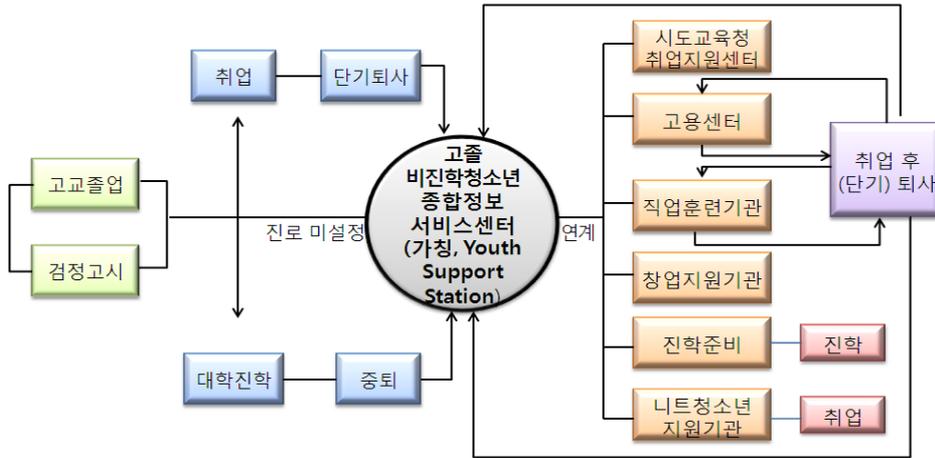




【그림 7】 고졸 비진학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 추진체계 개선안

- 고졸 비진학 청소년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운영

추진과제 6	고졸 비진학 청소년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운영	
	<p>•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보 및 각종 사회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으며 전문 지원기관을 연계해주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종합정보서비스센터(가칭 Youth Support Station)를 운영한다.</p>	
정책제안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V) 	



【그림 8】 고졸 비진학 청소년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제안(안)

-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특화된 ‘3업(3業, 3-up) 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추진과제 7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특화된 ‘3업[(3業, 3-up): 취업-전업(轉業 혹은 재취업)-창업] 성공패키지’사업 운영
<p>•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일환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특화된 ‘3업[(3業, 3-up): 취업-전업(轉業 혹은 재취업)-창업] 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p>	
정책제안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1단계> 진단 경로 설정	<2단계> 직업능력증진	<3단계> 취업알선
기본원칙	개인별 프로파일링 정교화 → 맞춤형 취업지원계획 수립	대상별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일 경험 프로그램 확대	일반 노동시장 취업(고용촉진 지원금 활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재정비 → 대안적 일자리 제공
청년	직업진로지도 강화	유망직종 채용예정형 훈련 확대 훈련지시권 발동	
복지급여 수급자	롤모델링 멘토링 등 복지수급자 특화 상담프로그램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기본 직업능력향상 강화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강화 자존감 회복 등 사회적 정서적 지원 강화	유망직종 채용예정형 훈련 확대 훈련지시권 발동 전업(재취업) 위한 지속 지원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3.6.4, p. 31)의 취업성공패키지 부분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분을 첨가하여 재구성

【그림 9】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3업 취업성공패키지

○ 하위집단 맞춤형 추진 과제

- 취업 및 구직청소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1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과제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 욕구 반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및 구직청소년이 갖는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는 기존 정책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과제들(예: 국가직무능력표준화, 일·학습듀얼시스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등)을 통해 상당부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pre> graph TD A[정책대상화 측면] --> B((고졸 비진학 청소년)) C[제도운영 측면] --> B D[기업 및 고용주 측면] --> B E[입법적 측면] --> B </pre>
<p>정책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중인 정책 (V) • 추진 예정 정책 (V) • 신규 제안 정책 () 	

- 진학·취업·창업 준비청소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2	직업훈련 소핑 예방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통합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p>•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유지 방법의 하나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쇼핑하듯이 참가한다거나 공공기관 취업지원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를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직업훈련 및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참가 이력 관리시스템을 연계 또는 통합하여 운영한다.</p>	
<p>정책제안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중인 정책 () • 추진 예정 정책 () • 신규 제안 정책 (V) 	

- 니트청소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3	NPO 및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니트청소년의 체험과 공감의 터전 마련
<p>• 사회적응력과 자존감의 수준이 낮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인 니트청소년이 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진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간과정으로서의 직업체험과 취업, 그리고 생활 공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NPO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한다.</p>	
<p>정책제안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중인 정책 () • 추진 예정 정책 () • 신규 제안 정책 (V) 	

<사례>

니트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사례: 일본 와타케센터			
○ 시설 - 정원: 출근형 20명, 숙박형 10명			
			
○ 사업내용 - 학습지원 및 자립생활 지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지원 - 니트청소년 및 가족 대상 상담지원			

발표 2

.....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폰은 손안의 작은 PC로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쉽게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미디어로 규정될 수 있다(Ofcom, 2011). 즉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PDA(개인용휴대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제품으로 휴대전화기능에 인터넷접속, 일정관리 등의 부가기능을 더한 것이다(배재권·정화민, 2008). 이전에는 음성통화와 문자기능이 주를 이룬 피쳐폰이 대세였다면 영상통화와 인터넷기능이 추가되면서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LTE 방식의 4세대 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스마트폰의 특성은 크게 운영체제, 무선인터넷플랫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멀티미디어기능, 사용자인터페이스, 멀티태스킹 기능(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일을 수행하는 기능)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배재권·정화민, 2008).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부가기능이 가능하면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거나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과 즉시성이다. 즉 휴대하기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접속이 가능하며 원하는 때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은 중독성이 강한 매체로 볼 수 있다. 데스크톱 PC의 경우 들고 다니기에 불편하고 일정한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가볍고 휴대성이 편리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단말기하나에 모든 매체가 융합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애니팡, 바운스볼, 드래곤플라이트 등 스마트폰용게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PC 기반의 게임이용패턴이 스마트폰기반의 게임이용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3).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융합되어 SNS 중독이나 게임중독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3)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77.4%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고 답했고, 자기 전 또는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도 절반(53.9%)을 넘었다. 특히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에 대한 접속이나 음란·유해 앱 이용접촉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대한 대처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PC나 방송매체와 달리 스마트폰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한 매체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큰 매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부모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이 야기하는 문제는 무수히 많지만,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크게 중독성, 따돌림, 유해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며 청소년들이 음란물 등 유해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사회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영국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문제점

1) 스마트폰중독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중독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강희양·박창호(2012: 565)는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 때문에 생기는 초조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의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하고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이용주체의 능동성과 개입활동성이 높아 인터넷중독이나 휴대전화중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독의 차원과

정도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김병년, 2013).

스마트폰 중독조사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최근 몇 차례 실시되었다. 먼저, 서울시가 강북과 성북지역에 거주하는 초, 중, 고, 대학생 등 총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의 5.9%가 중독사용군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중독률(8.3%)이 남학생(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헤럴드경제, 2013.3.26 참조). 이 조사에서는 네 집단 중 중학생의 중독률이 가장 높았고 우울이나 불안성향이 높을수록 중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 가운데 58.1%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통제하지 않았고 79.7%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헤럴드경제, 2013.3.26).

황경혜·유양숙·조옥희(2012)는 대학생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중독사용군은 전체의 11.8%로 나타났고 여자대학생들의 중독정도가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강할수록 상태불안, 특성불안, 우울정도는 높게 나왔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사용군이 정상사용군에 비해 어깨통증호소가 많았으나 다른 부위의 상지통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년(2013)도 서울소재 46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울이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높은 우울성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통제력 향상과 우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대상의 조기발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 낮고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중독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김형지·김정환·정세훈, 2012).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우울이나 불안, 자기효능감, 감각추구성향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스마트폰중독과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스마트폰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¹⁾. 이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돼 있다. 1요인은 일상생활장애로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학교성적이 떨어지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요인은 가상세계지향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세계에 몰입돼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3요인은 금단현상으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4요인은 내성현상으로 종전과

1) 자세한 연구결과는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보고서를 참조바람.

같은 수준의 만족을 얻으려면 더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의 조사는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3주간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패널을 확보하고 있는 한 온라인조사전문업체에 의뢰해 실시되었고 중, 고등학생 총 3,00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아래 <표 1>에 나타나듯이, 전체 응답자의 27.6%가 잠재적 위험군에 속했고 7.6%는 고위험군이었다. 즉 전체응답자의 35.2%가 스마트폰 중독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비율은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가령,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2011년도에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11.4%였지만 2012년도 조사에서는 18.4%로 나온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독성향도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스마트폰 중독위험에 노출됐다.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합친 비율은 여학생들의 경우 42.6%였고 남학생들의 경우는 28.6%였다.

교급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경우가 스마트폰 중독위험성이 높았고 아버지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위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저소득가정자녀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게 나온 것이다.

표 1 **배경변인에 따른 스마트폰중독 정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중독률(잠재적 위험+고위험)	전체
전체		1,942 64.7%	829 27.6%	229 7.6%	35.2%	3,000 100.0%
성	남	1,127 71.3%	359 22.7%	94 5.9%	28.6%	1,580 100.0%
	여	815 57.4%	470 33.1%	135 9.5%	42.6%	1,420 100.0%
교급	중학교	1,004 66.9%	386 25.7%	110 7.3%	33.0%	1,500 100.0%
	고등학교	938 62.5%	443 29.5%	119 7.9%	37.4%	1,500 100.0%

학년	중1	372 76.4%	91 18.7%	24 4.9%	23.6%	487 100.0%
	중2	315 63.8%	143 28.9%	36 7.3%	36.2%	494 100.0%
	중3	317 61.1%	152 29.3%	50 9.6%	38.9%	519 100.0%
	고1	301 59.8%	155 30.8%	47 9.3%	40.1%	503 100.0%
	고2	312 62.0%	154 30.6%	37 7.4%	38.0%	503 100.0%
	고3	325 65.8%	134 27.1%	35 7.1%	34.2%	494 100.0%
가정유형	양부모 가정	1,580 64.4%	687 28.0%	186 7.6%	35.6%	2,453 100.0%
	한부모 가정	282 68.4%	98 23.8%	32 7.8%	31.6%	412 100.0%
	조손 가정	40 62.5%	20 31.3%	4 6.3%	37.6%	64 100.0%
	기타	40 56.3%	24 33.8%	7 9.9%	43.7%	71 100.0%
아버지 직업유무	있음	1,791 64.5%	777 28.0%	207 7.5%	35.5%	2,775 100.0%
	없음	62 59.0%	27 25.7%	16 15.2%	40.9%	105 100.0%
어머니 직업유무	있음	1,313 63.8%	587 28.5%	158 7.7%	36.2%	2,058 100.0%
	없음	566 66.7%	222 26.1%	61 7.2%	33.3%	849 100.0%
가정의 경제수준	하	134 60.9%	62 28.2%	24 10.9%	39.1%	220 100.0%
	중	1,619 64.3%	712 28.3%	186 7.4%	35.7%	2,517 100.0%
	상	189 71.9%	55 20.9%	19 7.2%	28.1%	263 100.0%

주2). 아버지직업 N=2,880, 어머니직업 N=2,907

2) 부모직업의 경우 '잘모르겠다'거나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함.

2)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초래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따돌림이다. 일명 ‘사이버불링’은 이메일이나 채팅서비스, 소셜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Patchin & Hinduja, 2011, p. 728). 국내의 경우 최근에는 카카오톡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일명 ‘카따’ 현상이 등장하기도 했다(동아일보, 2013. 3. 7). ‘카따’는 카카오톡의 왕따를 의미하는 것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에서도 욕설이나 따돌림, 비방 등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동아일보, 2013. 2. 22). 특히 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채팅을 하는 이른바 ‘반톡’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욕을 하거나 놀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따돌림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사이버따돌림³⁾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사이버불링 피해의 원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Accordino & Accordino, 2011),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학교만족도(신나민·안화실, 2013),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 이용(Hinduja & Patchin, 2008; Smith et al., 2008)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다양한 앱 이용이 가능하면서 채팅서비스나 소셜네트워크 등 타인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연속적 연결망에서 따돌림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창호·이경상, 2013).

사이버불링 가해원인으로는 학교, 컴퓨터, 휴대전화에서의 비행친구 수, 부모로부터의 욕설, 폭력경험, 충동성, 도덕적 죄책감이 제시되었다(남상희·권남희, 2013). 즉 비행친구가 많고 부모로부터 욕설이나 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충동적이며 도덕적 죄책감을 덜 느낄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이 크고 학업스트레스가 심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종길, 2013). 더불어, 학교만족도가 낮고 디지털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은 높았다(신나민·안화실, 2013).

특히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을,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은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기도 했다(이창호·이경상, 2013).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오프라인/온라인 상에서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 학교만족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출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서 2013년 5월 31일 인출함).

도, 비행친구 수 등이 사이버불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이버불링가해 이유로 청소년들은 '재미'를 가장 많이 선택해 유희적인 차원에서 사이버불링을 행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봉섭, 2013).

본 연구가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실태⁴⁾를 살펴본 결과, 아래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채팅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따돌림 경험은 31%, 문자는 28%, 사진 1.6%, 이메일 1.3%였다. 여학생들의 경우 채팅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다. 남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을 따돌리는 사진이나 이메일을 여학생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따돌림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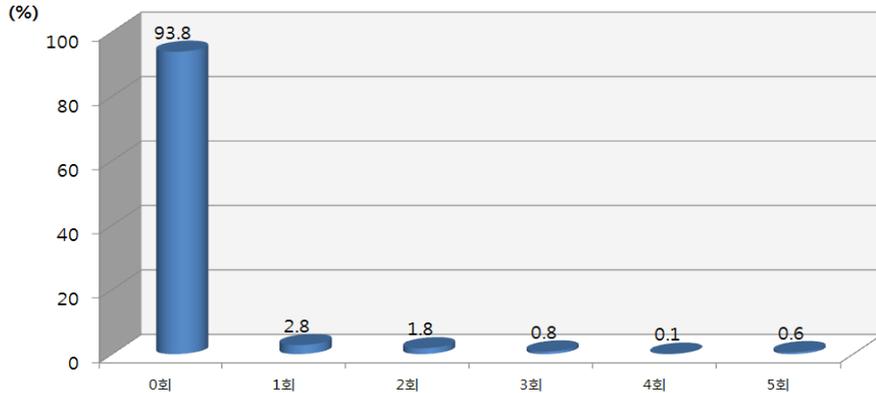
표 2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실태**

(단위: %)

		스마트폰 채팅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사진을 받아 본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이메일을 받아 본 적이 있다
전체		3.8	3.1	2.8	1.6	1.3
성	남	3.6	2.7	2.8	2.5	2.1
	여	4.0	3.5	2.7	0.6	0.4
교급	중학교	5.0	4.0	3.5	1.4	1.3
	고등학교	2.6	2.1	2.1	1.9	1.2

따돌림을 당한 횟수를 합쳐 빈도를 살펴본 결과, 따돌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3.8%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1] 참고).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비율은 2.8%였고 다섯 유형을 다 경험한 비율은 0.6%였다.

4) 최근 3개월간의 경험을 질문한 것으로 각 문항에 대해 있다, 없다로 답변함.



[그림 1]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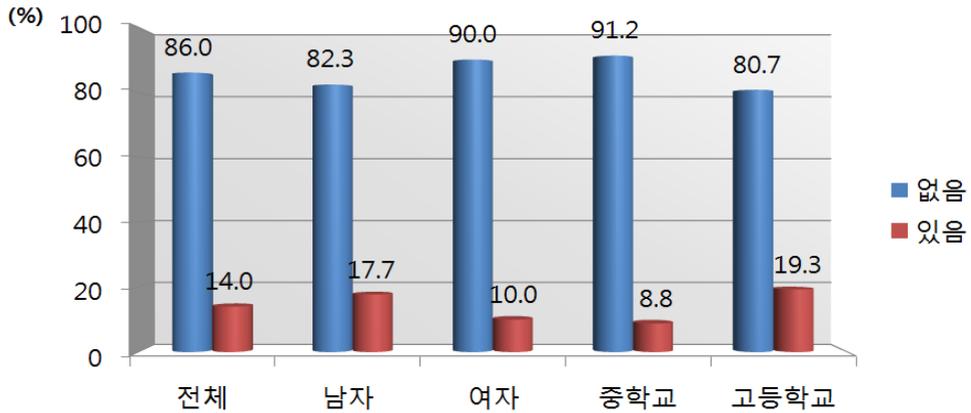
이처럼,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든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교육부가 2013년 발표한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와 비슷한 결과로 이 조사에서는 7.9%의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했다⁵⁾. 교육부(2013) 조사결과 사이버따돌림은 2012년 5.7%에서 2013년 7.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콘텐츠 접촉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음란물과 같은 유해콘텐츠를 접하는 청소년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2012)의 조사결과 성인물 이용경험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접촉하는 주 이용매체로 P2P 및 파일공유사이트를 가장 많이 꼽았고, 포털이나 인터넷카페 등 인터넷서비스, 비디오/DVD, 텔레비전, 휴대전화 순이었다. 비록 휴대전화를 통해 성인물을 접촉하는 비율은 높지는 않았지만 성인물에 대한 타인과의 공유수단으로는 휴대전화가 높게 나타났다. 즉 성인물 이용경험 청소년들의 36.1%가 다른 친구들과 만나 성인물을 돌려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25.3%는 휴대전화로 성인물을 친구들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파일공유사이트는 20.0%, SNS는 5.7%, 카페/블로그는 5.4%로 나타났다(안전행정부, 2012). 이 같은 사실은 청소년들의 성인물 주요 접촉경로는 웹하드 및 P2P이지만 친구들과의 공유수단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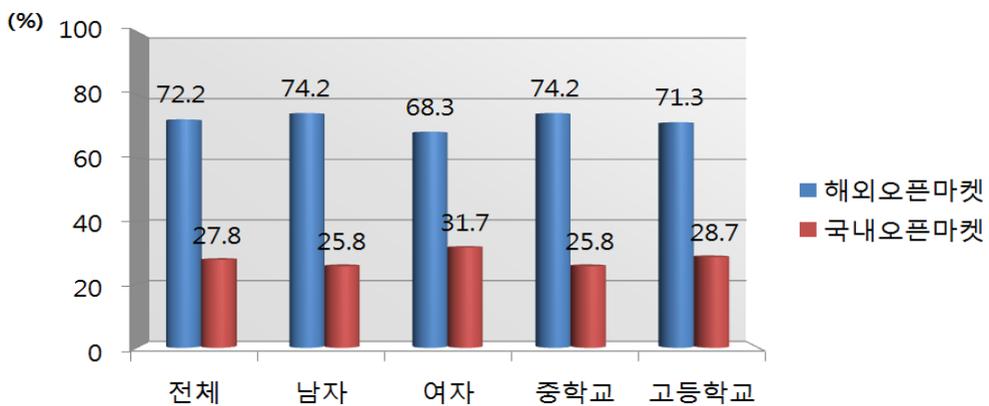
5) 교육부 보도자료(2013년 11월 29일자)를 참고함.

본 연구의 조사결과, 최근 3개월간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음란물, 도박 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4%가 그렇다고 답했다([그림 2] 참조). 성별로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 2]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용 앱 다운로드 여부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앱들을 주로 어디서 다운로드 했느냐고 질문한 결과, 구글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 3] 참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더 많이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성인용 앱 다운로드 경로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알아본 결과, 아래 <표 3>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응답자 10명 중 7명 가량이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스마트보안관⁶⁾ 중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차단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응답자의 25.3%였고 스마트보안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2.7%에 그쳤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차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았다.

표 3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둘 중 어떤 것도 이용 안함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스마트보안관 이용
전체		71.3	25.3	12.7
성	남	73.9	22.9	12.7
	여	68.3	28.0	12.7
교급	중학교	67.2	29.1	15.3
	고등학교	75.3	2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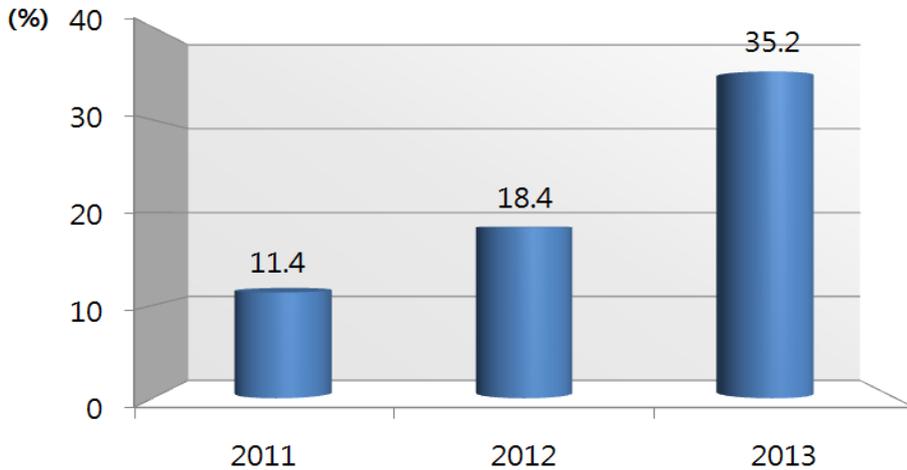
3.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1) 스마트폰 중독대책

앞서 살펴본 대로, 스마트폰의 사용은 이제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일상화되고 있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과 교류하며 일상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일상화된 일이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거나 수업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등 무절제한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항상 휴대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독성이 강한 매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중독, 게임중독처럼 스마트폰 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들

6)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2012년 6월 개발한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 상에서 음란물, 폭력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본 조사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무려 35%에 달했다. 아래 [그림 4]에서도 나타나듯이, 해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4]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 추이(2011~2013)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때다.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 내에서 스마트폰 이용규칙 제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다(이창호·김경희, 2013). 즉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스마트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잘 때도 스마트폰을 켜 놓는 경우도 많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일일 정도로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삶에 일상화돼 있다. 즉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다닐 정도로 스마트폰은 이제 청소년들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쓰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일정 시간을 제한해 쓰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규칙을 각자 만들어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임소혜·조연하(2011)의 연구결과 부모의

7) 2011년과 2012년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임.

중재유형 중 통제적 유형만이 게임이용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해 간섭과 통제를 할수록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정해 놓는 경우가 자녀의 스마트폰의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있다.

(2) 중독방지 앱의 설치 및 청소년전용요금제의 의무화

앞서 논의한대로,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사용조절을 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을 사용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시중에는 '모모'를 비롯한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들이 많이 나와 있다. '모모'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 앱을 잠그면 그 기간 동안 그 앱을 사용할 수 없다(bntnews, 2013. 1. 31). 잠금은 시간별, 요일별로도 가능하다.

중독방지 앱의 설치와 더불어 청소년가입 시 청소년전용요금제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현재는 청소년들도 무제한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부모동의하에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데이터제한이 있는 청소년전용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제한데이터요금제에 가입하게 되면 데이터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기 쉽다.

(3) 스마트미디어교육의 내실화 및 법제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학교교실의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다. 예전 같으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게임을 하거나 카카오톡을 하는 게 일상화 되었다. 특히 수업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일부 학생들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수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아예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자 많은 학교들이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미디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⁸⁾에 의하면,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교육이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에 초점을 맞췄고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끝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학생들을 강당에 불러놓고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지를 나눠준 뒤 스스로 얼마나 스마트폰에 중독됐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발적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미디어리터러시함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즉, 스마트폰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줘야 하고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도 길러줘야 한다.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교육도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이뤄지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미디어교육이 법제화된다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스마트폰 중독예방 캠페인 확대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게임 등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이나 게임중독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은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예방 캠페인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터넷중독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정책들은 방송이나 지하철 등을 통해 많이 홍보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마트폰 중독을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정책들은 거의 홍보가 되지 않았다.

24시간 늘 이용 가능한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향후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를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는 '스마트폰 1-1-1'운동을 전개했다(뉴스천지, 2013.6.25). 이 운동은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 스마트폰을 끄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취지하에서 출발했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이어폰사용하기와 같은 스마트폰 에티켓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하철 등 청소년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스마트폰 중독시 상담할 수 있는 연락창구도 알릴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캠페인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 캠페인과 같이 꾸준히 전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8) 본 연구는 설문조사 외에도 1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용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했다. 자세한 인터뷰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2) 사이버불링대책

앞서 살폈듯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 이미 몇 년전부터 사이버불링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근래 들어서는 친구 뿐 아니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링이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사이버불링은 온라인공간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빠르게 확산된다는 면에서 그 피해 및 후유증이 물리적 폭력보다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이버불링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경시하거나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피해가 신체적 폭력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불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이미 주요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른 사이버불링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 및 교사 교육의 강화

부모의 경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을 초기에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사이버불링의 기본개념이나 자녀가 사이버불링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영국의 가장 큰 이동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이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행동을 제시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먼저, 자녀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최근 누군가로부터 자녀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이메일이나 문자, 동영상 등을 받았는지를 파악한다.

만약, 자녀가 사이버불링을 당했다고 하면 이에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지 모르므로 자녀에게 어떠한 불링에도 대응하지 말 것을 이야기 해 준다.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령, 텍스트를 저장하거나 이메일과 캡처한 웹사이트를 프린터 해 놓는다.

만약, 자녀의 친한 친구가 괴롭혔다고 생각하면 교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녀가 위협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면 지역 경찰과 접촉하는 것이 좋다.

출처: www.vodafone.com/parents/cyberbullying 에서 2013년 9월 13일 인출.

부모교육 뿐 아니라 교사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학교에서도 물리적 폭력에 비해 사이버불링을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이버불링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래간다는 사실을 교사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국내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최근 채팅서비스나 SNS를 통해 따돌림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이버불링이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들에게 사이버불링의 폐해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공유될 때 사이버불링을 쉽게 보고 넘기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 채팅 앱에 사이버불링신고 장치 설치

앞서 논의했듯이, 청소년 사이버불링은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터뷰에 응한 한 학생이 제안한 것처럼, 카카오톡에는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접근해 오는 사람들을 차단만 할 수 있지 신고할 곳이 없다. 따라서, 채팅 앱에 사이버불링관련 내용들을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불링이나 자살 등의 글을 발견하면 바로 페이스북 본사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Vodafone, 2012, p. 86). 그러므로, 카카오톡 같은 채팅 앱에도 이용자들이 사이버불링내용을 바로 본사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모바일가디언과 같은 사이버불링예방 앱 설치

중독방지 앱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앱이 모바일가디언이다. 월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부모가 회원가입 후 자녀의 휴대전화에 모바일가디언이란 앱을 설치하면 자녀가 친구에게서 받는 욕설이나 따돌림 등의 내용을 부모가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⁹⁾.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행하면 자녀가 누구로부터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부모가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부모에게 자녀의 인터넷사용내역을 문자로 알려주거나 유해콘텐츠접촉을 차단하는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이창호·김경희, 2013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모바일가디언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자녀가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3) 유해콘텐츠차단대책

앞서 설문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응답자의 14%가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주로 구글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와 같이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해 성인용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오픈마켓과 달리 해외오픈마켓의 성인인증절차가 그다지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이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스마트보안관과 같은 유해차단정보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유해콘텐츠 차단서비스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1)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설치 의무화

앞서 양적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한 청소년은 전체의 30% 가량에 불과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물 등 유해콘텐츠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차단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치는 스마트폰 구입시부터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스마트폰 구입시 차단프로그램설치를 의무화하고

9) 모바일가디언 홈페이지 <http://mguardian.co.kr/>에서 2013년 10월 2일 인출.

있다(이창호·김경희, 2013에서 재인용).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구입시 차단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차단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스마트폰에 동시에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보안관과 같이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사례에서처럼 부모들이 쉽게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 한선교의원은 2011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미성년자와 정보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¹⁰⁾. 그는 1년 뒤인 2012년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등에게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도록 기술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¹¹⁾. 하지만 이 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인 처벌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내용을 엄격히 해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부모용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자녀지도매뉴얼 보급 및 확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일선 학교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매뉴얼(초등용, 중등용)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매뉴얼에는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예방, 진단, 지도 및 상담 등의 생활지도방법이 담겨 있다. 하지만,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지침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독일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자 2010년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다(이창호·김경희, 2013에서 재인용). 이 지침서에는 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유익한 사이트 정보제공,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등이 실려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영국의 경우도 이동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이 자녀의 안전한 스마트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북인 'Digital Parenting'을 발간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vodafone, 2012). 이 가이드북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설치해야 하는 지가 그림으로 쉽게 설명돼 있고 우려스러운 스마트폰 내용을 어떻게 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게 리포트 해야 하는지 등이 자세히

10) <http://www.hansunkyo.com/> 에서 2013년 11월 1일 인출

11) <http://www.hansunkyo.com/> 에서 2013년 11월 1일 인출

설명돼 있다. 즉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녀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자는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배포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스마트폰의 기능이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도 하루빨리 부모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최근 몇 년 전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필수품이 된 것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열차티켓도 구입할 수 있고 여행정보도 검색할 수 있으며 날씨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평소 궁금하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여러 지식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도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잘못 사용되면 독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듯이,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스마트폰 중독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청소년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나친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습에 방해를 받으며 부모와의 관계나 대화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스마트폰 중독 뿐 아니라 따돌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특징인을 겨냥한 집중적인 따돌림이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따돌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로 이러한 짓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사이버불링의 경우 금품갈취나 심부름 등 물리적 폭력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고 대부분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이버따돌림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사이버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국내 오피마켓보다는 구글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 같은 해외오피마켓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보다 해외오피마켓이 비교적 성인인증절

차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음란물이나 도박 등 유해콘텐츠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독이나 따돌림 등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학교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많은 학교들이 스마트폰을 조례 때 거두고 종례 때 돌려주는 규칙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만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를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반 마다 혹은 선생님 마다 휴대전화를 거두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 이러한 규칙이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고 있었다. 절반에 못 미치는 41%의 학생들이 최근 1년 내 스마트폰 관련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질적 연구결과 대부분의 스마트폰 교육이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자가진단 하는 데 그쳐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호·김경희, 2013). 따라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미디어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영국은 학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한 스마트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스마트폰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기에 바빴지 그들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는 소홀히 했다. 따라서,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기술발전에 조응하는 정보문화의 확립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건전하고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희양·박창호,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제2호, (2012): pp. 563-580.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규칙운영매뉴얼(초등용)』, 2012.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규칙운영매뉴얼(중등용)』, 2012.
- 김병년,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39권, (2013): pp. 49-81.
- 김봉섭,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와 주요 영향 요인」,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 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 2013.
- 김종길,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 연구』, 제9권 제1호, (2013): pp. 47-68.
- 김형지·김정환·정세훈, 「스마트폰중독의 예측요인과 이용행동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 이션학보』, 제29권 제4호, (2012): pp. 55-93.
- 남상희·권남희, 「청소년사이버불링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0권 제3호, (2013): pp. 23-43.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2013.
- 배재권·정화민, 「스마트폰의 기능적 속성이 채택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 연구』, 제9권 제4호, (2008): pp. 337-361.
- 신나민·안화실,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및 피해·가해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26권 제4호, (2013): pp. 1-21.
-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이용실태조사』, 2013.
- 이창호·김경희,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2013.

- 이창호·이경상,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네트워크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2013): pp. 259-285.
- 임소혜·조연하, 「부모와 또래집단의 게임이용중재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제4호, (2011): pp. 173-218.
- 황경혜·유양숙·조옥희,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2012): pp. 365-375.
- Accordino, D. B., & Accordino, D. B. M. P., “An Exploratory Study of Face-to-Face and Cyberbullying in Sixth Grade Students,”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Vol.40, No.1 (2011) pp. 14-30.
- Beatbullying, *Virtual Violence : Protecting Children from Cyberbullying*, 2009.
- Beatbullying, *Virtual Violence II: Progress and Challenges in the Fight against cyberbullying*, 2012.
- Hinduja, S., & Patchin, J. W.,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Vol. 29, (2008) pp. 129-156.
- Ofcom, *Communications Market Report: UK*, 2011.
- Ofcom, *Children and Parents Media Attitudes-Smartphone findings*, 2012
- Patchin, J. W., & Hinduja, S.,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 Society*, Vol.43, No.2 (2011) pp. 727-751.
-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 Tippett, N.,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49, No. 4 (2008) pp. 376-385.
- Vodafone, *Digital Parenting*, 2012.
- 뉴스천지 (2013. 6. 25). [서울시]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448>(검색일: 2013.9.12)).
- 동아일보 (2013. 2. 22). [초등생 톡톡] 스마트폰이란?:
(<http://news.donga.com/3/all/20130222/53212124/1> (검색일: 2013.5.13)).
- 동아일보 (2013. 3. 7). 왕따에 떨던 10대, 이젠 ‘카따’ 공포:

(<http://news.donga.com/3/all/20130307/53516043/1> (검색일: 2013.5.13)).

안전행정부(2012. 7. 30). 음란물 본 청소년 5% “성추행·성폭행 충동 느껴”: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2554&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categoryCd=> (검색일: 2013.5.3)).

헤럴드경제 (2013. 3. 26). ‘스마트폰 중독’ 여학생이 남학생 3배: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0326000072> (검색일: 2013.5.22)).

bntnews (2013. 1. 31). 스마트폰 중독방지 어플 ‘모모’, 알람 설정하듯 간편하게 잠근다: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5&c1=05&c2=05&c3=00&nkey=201301311154193&mode=sub_view 검색일: 2013.9.12)).

발표 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성 은 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요약〉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행복일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미래 국가의 주역으로써 이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을 돕는 일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에는 청소년 5개년 계획을 수립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도를 진단하여 행복한 청소년이 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 청소년의 행복마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한 지표와 지표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청소년 행복을 측정하였다. 청소년 행복지수는 개인수준(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목적추구), 가정/학교/사회 수준(생존영역(경제적 웰빙, 건강/보건), 보호영역, 관계영역, 성장영역(교육/놀이와 여가/참여), 제도수준에서 157개의 지표가 도출되었다. 각 지표에 대한 청소년의 행복지표 측정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청소년이 고등학교 보다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청소년 행복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행복, 행복마을, 지표개발,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정감, 경제적Well-being, 보호, 교육, 성장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소년은 한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주역으로써 이들의 올바른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이 올바르게 전인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성장과 발달과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국립국어원 2011)”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복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Bronfenrener(1979)는 이러한 행복감에 대해 개인을 독립적인 유기체로 보기 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발생하게 되어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생태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인들에 대한 인식에 따라 행복도가 달라 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Glatzer와 Zapf(1984)에 의하면 이를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과 객관적 삶의 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좋고 객관적 삶의 여건들이 좋으면 행복감을 느끼고,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좋지만 객관적 삶의 여건이 나쁠 경우 적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나쁘고 객관적 삶의 여건들이 좋으며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모든 조건이 나쁘면 결핍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은모와 김균희 (2013)에 의하면, 청소년의 행복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특성보다는 개인적 특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특성은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나 개인적 특성에 보다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여건들은 행복에 대한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평균 541점 2위, TIMSS 점수에서 수학 597점 2위, 과학 553점 4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등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2011년 발표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의하면, 15세에서 29세 사이의 한국 청소년들은 단 9.4%만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행복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 청소년은 45.9%, 영국 45.3%, 스웨덴 43.2%, 핀란드 37.8%, 미국 36.6%, 독일 26.7%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우리와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의 청소년마저도 3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최근 실시한 「2013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초4~고3)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72.5점으로 OECD 23개국 중 최하위 수준(뉴시스, 201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낮은 행복도를 갖는 이유는 청소년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아이러니하게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에 비례하게 학업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제도는 입시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 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교과에 대한 흥미도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성은모, 2013). 결국, 최고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지라도 정작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와 같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경쟁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5년 주5일 수업제 부분도입 이후 청소년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004년의 4시간 33분에서 2009년에는 4시간 5분으로 오히려 28분 감소되었으며, 주5일제 전면 도입으로 늘어난 토요일 시간은 사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울감을 겪는다는 청소년은 37.4%,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0).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이 낮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악화에 있다. 우리나라는 핵가족화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가족 해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족 및 이혼가정 증가 등으로 가족 간 소통 및 유대감이 감소하여 자녀에 대한 가족의 보호·지지 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손가정은 2000년에 4만5천225가구에서 10년 후인 2010년에는 6만9천175가구로 52.9% 증가했으며, 양육모 대비 미혼모의 비율도 1998년의 7.2%에서 2009년에는 29.5%로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이러한 가족구성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청소년백서, 2010).

그리고 경제위기의 여파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율은 1989년의 8.6%에서 2010년에는 14.9%로 73.2% 증가했다. 성인이 이행의 불안정성 및 지연 현상으로 인해 갈수록 높아지는 심리적·현실적 긴장과 압박감도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7.7%로 전체실업률 3.4%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대기업 입직 연령은 남자 28.7세, 여자 25.6세에 이르고 있다(리크루트, 2009).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 및 청년의 상대적 임금 하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 증대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미래사회의 구성원이자 미래 국가의 성장동력인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건강한 성장환경 확보함으로써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새정부는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13-17)'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영역을 중심으로 '10. 건전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그리고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과 같은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어떠한 지표를 중심으로 행복한 마을을 조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지표를 고려 및 선정하여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여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 그리고 행복마을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환경적 요소들은 무엇인가?

셋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위한 지표는 무엇이어서 하는가?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행복마을 지표에 따른 청소년의 행복수준은 어느정도인가?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추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 및 행복한 마을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를 위하여 1) 행복/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행복과 삶의 질 요인에 대한 선행문헌분석을 통하여 3)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행복에 대한 개념적 정의, 4) 청소년 행복의 개념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 및 행복한 마을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행복한 마을을 구성하기 위한 지표 구성의 이론적 틀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의 행복과 행복한 마을의 개념적 정의를 구성하는 기본 틀인 Bronfenbrenner(1979)의 행복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과 Alderfer(1972)의 생존, 관계, 성장 욕구이론에 근거하여 행복지표의 영역과 수준에 대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 지표구성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지표를 선정 및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지표로써 UNICEF의 아동친화도시지표(Children Friendly City Indicator: CFC)와 아동 Well-Being 지표, UNESCO의 Growing up in the city 지표 등을 중점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종합·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 및 개발된 지표에 대한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지표 구성의 이론적 틀과 지표를 확정지은 후 청소년 행복수준을 측정하였다. 선정 및 개발된 지표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학계, 정책, 현장 전문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표의 적합도 및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의 타당도 평가는 총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수집된 93명(아동·청소년 관련 현직 교수 30명, 청소년정책 관련 부처 공무원(중앙, 지방 포함) 25명,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 19명, 중고등학교 교사 18명)의 의견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를 일차적으로 선정하는 데 반영하였다. 그 결과, 개인수준(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목적추구), 가정/학교/사회 수준(생존영역(경제적 웰빙, 건강/보건), 보호영역, 관계영역, 성장영역(교육/놀이와 여가/참여), 제도수준에서 157개의 지표가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4,348명(중학교 1~3학년: 13,843명, 고등학교 1~2학년:10,50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행복지수를 측정하였다.

II. 행복 및 행복구인에 대한 선행문헌 탐색

1. 행복의 개념 및 특성

일반적으로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삶에 만족하여 기분이 좋은 상태(Layard, 2003), 또는 삶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상태 (김신영, 백혜정, 2008) 등과 같이 학자마다 내리는 정의는 다소 다르나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해 만족하여 긍정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에 행복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Campbell(1976)에 의하면 행복(삶의 질)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적,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의 영역별 조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행복(삶의 질)을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첫째,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환경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사회복지제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이 객관적인 연구방법에서 사용되었던 측면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 환경, 교육, 의료시설 등의 사회여건에 대한 평가 이외에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여건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 것이다. 가정의 경제수준, 가정내 부부관계 또는 부모-자식관계, 직장 및 학교에서의 생활, 친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 여가방법은 사회여건 이외에 삶의 질에 있어 또 다른 주요 영역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를 통해 전체적인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개인들의 다양한 정신심리영역을 행복(삶의 질)의 주요한 지표로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긍심, 능력인지도, 삶의 의미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삶의 질)을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개인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느끼는 전체적인 안녕감 혹은 행복감이라고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Diener(1984)에 따르면 주관적 연구방법은 어떤 요인들이 행복에 중요한가를 보는 시각에 두 가지의 설명방식이 존재하는데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상향이론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가와 만족감을 통해 전체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행복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순간들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으로 주관적 안녕 또는 삶의 만족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의 증가로 좀 더 윤택한 의식주 생활을 누리면서 느끼는 만족감, 결혼생활을 통해 가족과 함께 느끼는 기쁨, 직장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감과 사회적 소속감,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즐거움, 종교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집단적 deorka이 삶에 대해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Campbell(1976)의 연구에서와 같이 건강, 결혼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 주택, 직장, 지역사회, 종교, 기타 사회활동, 경제수준, 조직체 활동, 정부 등 12영역에서의 만족감을 통해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이에 속한다. 대부분의 국가 간 비교연구들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이 가난한 국가에 비해 더 높은 주관적 안녕을 보고하고 있다(Diener, 2002).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즐거운 경험들을 증가시킬수록 행복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의 환경적 여건들이 행복에 중요하다. 따라서 행복을 증진하려는 노력은 환경적 여건과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양지애, 2010).

하향이론은 객관적인 외부조건에 관한 판단보다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성향을 중시한다. 즉,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동일한 외부상황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성향의 차이를 발견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외부 조건들 혹은 그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관적 판단들을 고려하기보다는 개인들의 자긍심, 통제능력과 같은 정신심리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나 삶의 질을 주관적 혹은 심리적 안녕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여 일반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혹은 안녕감을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Diener(2000)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평가'라 정의한 심리적 구인인 '주관적 안녕'은 지난 30여 년간의 연구결과 '긍정적 감정(정서)', '부정적 감정(정서)', '삶에 대한 만족'의 3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한바 있다. 행복의 연구에 있어 주관적 혹은 심리적 안녕감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그것이 독립적인 하위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주관적 안녕감은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삶의 만족감 등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Andrews and Withey, 1976; Diener, 1984). 긍정적 감정은 삶의 전체적으로 즐겁고 기쁘지, 부정적 감정은 삶에 있어 걱정, 슬픔 등을 느끼는지와 같은 감정적 요소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은 자신의 삶에 일반적으로 만족하는지의 인지적 평가를 말한다.

Ryff(1989)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에는 자긍심, 삶의 의미, 개인적 성장감, 자율성, 환경통제력 등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을 위의 요소들로 국한하게 될 때 삶의 질을 지나치게 심리적 영역으로만 다루게 되는데, Levine과 Croog(1984)는

삶의 질을 감정적 측면, 인지적 측면, 일반적인 행복감 외에 신체건강의 측면과 사회역할 수행의 측면을 포괄해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적 요소와 만족도 이외에도 신체적인 건강과 다양한 역할수행상의 만족도(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밖에 성취도와 만족감)가 삶의 질의 주요 요소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주관적 안녕감보다는 사회적 안녕감(societal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OECD, 1976). 사회의 특정 영역별 요소들을 고려하는 상하이론가들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연구는 Campbell(1976)의 연구와 Flanagan(1978)의 연구들 들 수 있는데 Flanagan(1978)은 삶의 질의 영역을 크게 신체 및 물질적 행복, 타자와의 인간관계, 사회활동, 개인적 성장감, 여가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영역에서의 만족감을 통해 삶의 질 혹은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Evans와 Cope(1989)도 삶의 질의 영역을 물질적 수준, 신체건강,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그 밖의 형제나 기타 가족관계, 친척관계, 직업의 특성,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직장에 대한 만족도, 스포츠, 여행, 예술 활동, 정치활동, 개인적 성장감 등 15개의 다차원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와 유사한 대표적인 연구로 삶의 만족을 물질적 복지, 신체적 복지, 관계, 개인의 발달, 여가 등의 특정 영역으로 구분한 Adelman, Taylor, Nelson(1989) 연구인 청소년용 '지각된 삶의 만족도 척도'(Perceived Life Satisfaction Scale; PLSS)가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 학교, 친구, 주거환경, 자기 자신에 대한 5영역에서의 만족감으로 삶의 질을 파악한 Huebner(1994)의 연구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도 이에 해당한다.

이외도 조명한 외(1994)는 삶의 질을 주관적 관점에서의 인지적 평가,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주관적 안녕복지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곽금주(1995)는 삶의 만족도를 자기만족, 학교만족, 주거환경만족, 친구만족, 가족만족으로 나누었고, 김의철, 박영신(2004)은 삶의 질의 하위영역을 가정생활(화목한 가족관계, 경제적 여유), 학교생활(친구관계, 학업성취), 여가생활(다양한 취미 생활, 경제적 여유), 종합(자기조절, 학업성취, 원만한 인간관계, 여가생활)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신현(1996)의 경우는 삶의 질을 주관적 만족감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에 대한 만족감과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김정연, 정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일상생활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서의 주관적 만족도로 규정하고, 개인 성격적 특성(자아 존중감)의 영역, 가정생활의 영역, 학교생활의 영역, 친구관계 영역 등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2.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의 특성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인의 특성은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자긍심, 삶의 의미,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신현(1996)의 경우,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가정에서의 만족, 학교생활에서의 만족, 친구관계에 있어서의 만족,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 등을 묻고 있으며, 개인 심리적 영역에서 자기효능감, 자긍심, 삶의 의미와 개인적 성장감 등을 묻고 있으며, 신체건강에 대한 것도 보았다. 그 밖에 개인의 사회배경의 특성(연령, 성, 부모의 교육정도, 가족의 수입, 결혼가정의 여부)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조명한 외(1994)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득, 인구학적 변인(연령, 성별, 취업여부, 교육수준, 종교), 사회적 행동 및 생활사건(사회적 활동, 생활사건), 성격적 요인(자기존중감, 정서상태), 신체적 요인(건강) 등으로 구분하였다. 광금주(1995)는 소득, 연령, 성별, 취업여부, 교육수준, 종교, 친구관계, 성격, 신체적 요인, 성적 등이 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겪는 생활사건(부모, 형제, 친구의 사망, 부모의 실직 및 이혼 또는 별거, 부모, 형제, 친구와의 다툼, 자신외모의 변화, 전학 등과 같이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보았다. 김의철, 박영신(2004)의 경우는 삶의 질인 각 하위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있는데, 가정생활에서는 화목한 가족관계와 경제적 여유가, 학교생활에서는 친구관계와 학업성취도가, 여가생활에서는 다양한 취미생활과 경제적 여유가, 종합적으로는 자기조절과 학업성취, 원만한 인간관계와 여가생활이 각 삶의 하위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로 추출되었다.

황옥경, 김영지 (2011)는 텔파이 조사와 유니세프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준을 누구나 건강한 마을, 모두가 안전한 마을,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배움을 누리는 마을, 함께 참여하는 마을 등 5개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개의 세부영역, 총 84개의 평가지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세부영역(황옥경, 김영지, 2011)

조성기준	세부영역	지표 수
누구나 건강한 마을	영양·급식, 건강, 정서·행동, 인프라	17개
모두가 안전한 마을	물리적 환경, 유해환경, 위기·응급상황, 인프라	20개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활동 및 여가프로그램 활동 및 여가시간공간, 인프라	15개
배움을 누리는 마을	교육기회, 교육연계 진로·직업, 인프라	15개
함께 참여하는 마을	의견존중, 표현의 자유 사회참여, 인프라	17개

Huebner(2005)는 인종, 성, 학년,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SES)라는 인구학적 변인으로 미국 중학교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UNICEF(2006)에서도 청소년기의 행복에는 주관적 행복이나 물질적 행복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또래친구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UNICEF에서는 아동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건강행동을 설정하고 정리한 바 있다.

표 2

UNICEF의 청소년 행복 지표영역 및 구성요소

영역	구성요소
물질적 행복 (Material well-being)	상대적 빈곤, 미취업 가정, 결핍
보건과 안전 (Health and safety)	영아건강, 예방접종, 사고사
교육 (Education)	학업성취, 교육참여, 고용으로의 전환
가족과 친구관계 (Peer and family relationship)	가족구조, 부모관계,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Subjective well-being)	건강, 학교생활, 개인행복
건강관련 행위 (Behavior and risk)	건강행위, 위험행위, 폭력경험

* 출처: UNICEF(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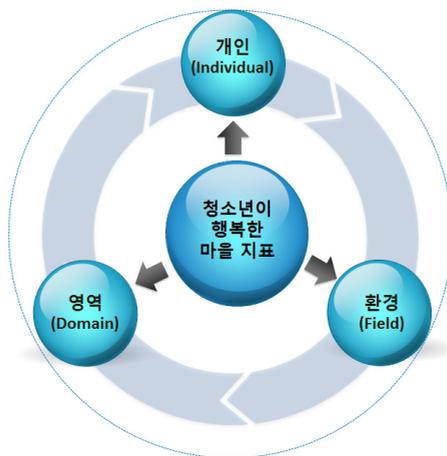
최근 아동발달지표 관련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크게 결과 및 상황적 영역 등 2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8개의 세부영역(결과: 신체적 안녕, 인지적·교육적 안녕,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상황: 가족상황, 지역상황, 학교상황, 또래상황)을 중심으로 79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3

Mapping of Domains and Indicator of Children's Well-Being

영역		설명	지표 수
결과 영역 (outcome domains)	신체적 안녕	건강상태, 영양, 건강 보호, 신체적 활동, 안전 등이 포함됨.	11개
	인지적 · 교육적 안녕	연령에 맞는 학습능력, 기억력, 적응능력 등을 말함.	9개
	정서적 안녕	아동의 자신 및 미래에 대한 생각 등 정서적 상태	10개
	사회적 안녕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됨.	11개
상황적 영역 (contextual domains)	가족 상황	가족구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등이 포함됨.	15개
	지역 상황	거주지의 사회적 결집, 신뢰, 사회적 통제, 범죄, 위험, 고립, 차별 정도 등	9개
	학교 상황	아동의 발달, 경험 등에 영향을 주는 학교 환경	7개
	또래 상황	또래와의 관계	7개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의 행복을 제공하는 환경 및 지역사회 변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그림 1]과 같은 청소년 행복지표의 기본 영역구조를 구성하였다.



[그림 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의 기본 영역구조

III. 연구방법

1. 국내외 선행문헌 분석

- 청소년의 행복 및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에 대한 개념 탐색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위한 지표에 대한 문헌분석
 - 국내외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을 실시
 - 특히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지표로써 UNICEF의 아동친화도시지표(Children Friendly City Indicator: CFC)와 아동 Well-Being 지표, UNESCO의 Growing up in the city 지표 등을 중점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종합·분석
- 청소년의 행복 및 행복한 마을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행복한 마을을 구성하기 위한 지표 구성의 이론적 틀을 개발

2. 전문가 자문 및 타당화

- 선정 및 개발된 지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타당화 검사 실시
 - 2회에 걸쳐 학계, 정책, 현장 전문가(93명)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표의 적합도 및 중요도 조사를 실시
 - 아동·청소년 관련 현직 교수 30명, 청소년정책 관련 부처 공무원(중앙, 지방 포함) 25명,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 19명, 중고등학교 교사 18명의 의견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타당화
 - 개인수준(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목적추구), 가정/학교/사회 수준(생존영역(경제적 웰빙, 건강/보건), 보호영역, 관계영역, 성장영역(교육/놀이와 여가/참여), 제도수준에서 157개의 지표가 도출

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에 대한 설문조사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YHCI)에 의한 청소년 행복 현황 조사 실시
 - 16개 시·도의 청소년·학부모·교사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지표 조사 실시 (모수추정을 위해 층화다단계표집으로 청소년 24,384명(중학교 1~3학년: 13,843명, 고등학교 1~2학년:10,505명) 표집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YHCI)에 의한 청소년 행복 현황 조사결과 분석
 -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행복현황 비교 분석

4.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구성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중 주관적 지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조사문항을 구성했다. 조사도구 검사문항은 총 14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개인 수준 43문항, 생존영역 18문항(경제적 웰빙: 2문항, 건강/보건: 16문항), 보호영역 20문항, 관계영역 18문항, 성장영역 30문항(교육: 6문항, 놀이와 여가: 10문항, 참여: 14문항), 사회인구학적배경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4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조사지 구성 개요

수준	지표 영역 및 내용			문항수
I. 개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목적 추구, 정서상태, 행복도, 생활만족도, 삶의 질 평가			43
II. 가정/학교/지역사회	생존 영역	경제적 웰빙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한부모 가정 비율, 실업률, 무상급식 지원 예산, 아동 빈곤율, 근로청소년 비율 등	2
		건강/보건	주관적 건강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가정 생활환경 청결도, 학교 급식/식수/냉난방/화장실 등 시설 만족도, 자살율, 피임/질병 지원 가능성 등	16
	보호 영역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 느끼는 정도, 불량주택비율, 학대/방임 발생율, 학교내 남녀평등, 체벌, 학교폭력, CCTV설치, 지킴이	20

수준	지표 영역 및 내용		문항수	
	운영단 수, 집 밖에서 안전하다 느끼는 정도, 교통사고발생율, 유해환경감시단 수 등		18	
	관계 영역 부모님과과의 관계 만족도,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하루 중 부모와 평균 대화 시간, SNS를 통한 가족과의 대화 정도, 일주일간 가족과 식사 횟수 등			
	성장 영역	교육 책 보유권수,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활용정도,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보유여부, 교육비 지출비율 등		6
		놀이와 여가 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 일주일 간 평균 여가활동 시간, 일주일 간 가족과 평균 활동 시간, 한 달 간 평균 여가지출 비용 등		10
참여 가정 중요사 결정시 부모님은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진로 및 상급학교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부모 이혼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비율 등		14		
Ⅲ. 제도	청소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지자체 전략, 청소년 정책을 폭넓게 토의, 개발, 권고할 심의회, 특별위원회 또는 기관 등	-	
사회인구학적 배경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학력 근속연수(교사)		13	
총계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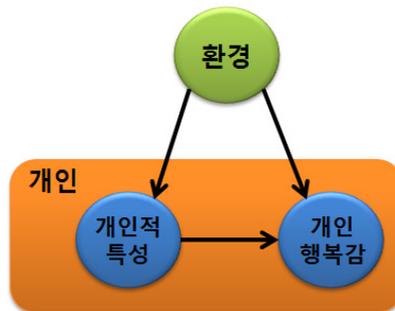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행복, 그리고 행복한 마을의 개념적 정의

행복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특성(자신, 사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환경(개인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환경, 문화, 가치, 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Glatzer와 Zapf (1984)가 제시한 '행복의 일반적 형성구조' 역시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복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표 5 행복의 일반적 형성 구조 (Glatzer & Zapf, 1984)

객관적 삶의 여건들	주관적 만족감, 안녕감	
	좋음	나쁨
좋음	행복	불협화음
나쁨	적응	결핍



[그림 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

그렇다면 행복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몸담고 있는 환경적 요인 즉,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가치관, 사회제도와 정책, 법률, 복지 서비스, 이데올로기, 문화 등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총체적 맥락 하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개체로 보았을 때, 청소년의 행복 또한 청소년 시기에 갖는 개인적 특성과 이를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개념을 청소년 시기에 갖는 개인의 특성과 외부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system view)(Bronfenbrenner, 1979)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청소년의 행복’을 조작적으로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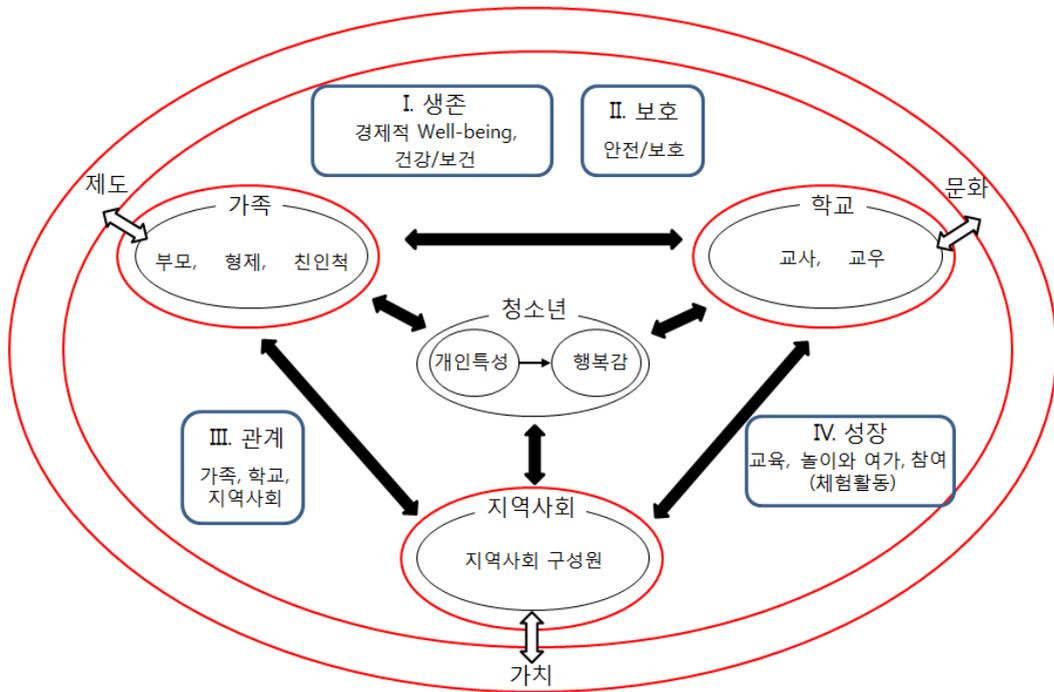
행복이란 청소년 시기에 갖는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외부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와 삶의 소중한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

행복 = f[개인적 특성*(외부환경에 대한 인식+자신의 존재인식+삶의 의미 인식)]

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의 개념 및 지표 구성요인

위에서 기술한 ‘청소년의 행복’에 기초해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정의한다면,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적의 생활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구성 요인 영역의 선정에는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학적 이론에서 제시하는 유기체(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의 상호작용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그 결과 행복 지표의 수준역시 미시체계인 개인(유기체)에 해당하는 I 수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중간체계에 해당하는 II 수준, 그리고 제도/문화/가치의 거시체계에 해당하는 III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 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구성 체계 및 요인의 이론적 모형

이와 같은 수준 구분을 기초로 각 수준을 채우는 요인들은 UNICEF 아동 친화도시 구성요인을 기반으로 국내의 사회문화적 환경특성에 부합하는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공통적 속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4가지 영역(생존, 보호, 관계, 성장)을 중심으로 8가지 요인을 추출 했다. 각 요인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I. 생존 영역은 경제적 Well-being, 건강/보건 요인이고, II 보호 영역은 안전/보호 요인, III 관계 영역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IV 성장 영역은 교육, 놀이와 여가, 참여, 그리고 제도, 가치, 문화 요인이다. 이들 요인이 각각의 행복지표 수준에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는 아래 표에 기술한 바와 같다.

표 6 행복 지표의 수준 및 영역별 요인 구성

생태학적 수준	영역	요인
I 수준	I. 생존	경제적 Well-being, 건강/보건
	II. 보호	안전/보호
II 수준	III. 관계	관계(가족/학교/지역사회)
III 수준	IV. 성장	교육, 놀이와 여가, 참여, 제도

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의 선정 기준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를 개발을 위한 전문가 및 청소년 대상 조사를 실시하고자 다음의 몇 가지 사항으로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첫째, 국제비교를 위해 유니세프, 유네스코, 유니세프 국가연합의 3개국(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미국, 한국의 총 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맥락에 부합하는 지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한 유니세프 Child Well-being 지표(2007), 미국 CWI (2007), OECD Child Well-being 지표(2009), 그리고 Mapping of Domains and Indicator of Children's Well-Being(2013) 등을 비교해서 공통 항목을 추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지표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Lyubomirsky와 Sheldon(2005)은 개인의 행복감은 유전적 요인이 50%, 개인적 특성이 40%라고 밝혔듯이,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지표에 포함하고자 한다.

셋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제도 환경만을 선정하여 각 환경별로 지표를 체계화하였다. 이를 위해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생태학적 이론은 청소년의 발달·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따라서 지표의 구성영역을 상황적 영역(contextual domains) 즉, 가족, 학교, 지역사회, 또래 등이 아닌 주제별 영역(subjective domains) 즉, 건강과 안전, 놀이와 여가, 교육, 가정환경 등으로 구성하였다. 주제별 접근은 향후 추진과제인 시도별 비교·분석을 위해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이유에서 지표의 구성요소는 지역사회가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했다. 즉, 개인의 안녕 수준(신체 발달, 인지 능력, 정서 상태, 사회적 관계 등) 보다는 지역사회 환경(놀이와 여가를 위한 여건, 유해환경, 교통환경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와 항목을 선정했다.

넷째, 인간은 생존, 관계,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Alderfer, 1972, 김명소, 한영석, 2006, 재인용),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밝혀진 연구결과(김명소, 한영석, 2006)를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환경체계에서 생존, 관계, 성장의 욕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환경과 개인의 욕구체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로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를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객관적 조건에 대해서만 측정하거나 주관적 만족도만 측정한 연구들도 다수 있으나,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도를 통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관점을 수용하여 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4.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구성체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는 'Ⅰ수준. 개인특성', 'Ⅱ수준. 가정-학교-지역사회 환경', 'Ⅲ수준. 제도' 등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으며, 'Ⅱ수준. 가정-학교-지역사회 환경'은 환경별로 4가지 영역 즉, ① 생존영역(경제적 웰빙, 건강/보건), ② 보호 영역(보호), ③ 관계영역(관계), ④ 성장영역(교육, 놀이와 여가, 참여)에 대한 지표가 포함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구성체계를 제시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7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의 구성체계

수준	지표 영역 및 내용		지표수	
Ⅰ. 개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목적 추구		3개	
Ⅱ. 가정/ 학교/지역사회	생존 영역	경제적 웰빙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한부모 가정 비율, 실업률, 무상급식 지원 예산, 아동 빈곤율, 근로청소년 비율 등	11개
		건강/보건	주관적 건강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가정 생활환경 청결도, 학교 급식/식수/냉난방/화장실 등 시설 만족도, 자살율, 피임/질병 지원 가능성 등	32개
	보호 영역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 느끼는 정도, 불량주택비율, 학대/방임 발생율, 학교내 남녀평등, 체벌, 학교폭력, CCTV설치, 지킴이 운영단 수, 집 밖에서 안전하다 느끼는 정도, 교통사고발생율, 유해환경감시단 수 등	34개
	관계 영역		부모님과과의 관계 만족도,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하루 중 부모와 평균 대화 시간, SNS를 통한 가족과의 대화 정도, 일주일간 가족과 식사 횟수 등	18개

수준	지표 영역 및 내용			지표수
	성장 영역	교육	책 보유권수,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활용정도,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보유여부, 교육비 지출비율 등	22개
		놀이와 여가	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 일주일 간 평균 여가활동 시간, 일주일 간 가족과 평균 활동 시간, 한 달 간 평균 여가지출 비용 등	15개
		참여	가정 중요사 결정시 부모님은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진로 및 상급학교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부모 이혼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비율 등	19개
Ⅲ.제도	청소년 1인당 청소년예산, 청소년담당 행정공무원 1인당 청소년 수, 청소년담당 공무원의 평균 청소년담당 근속연수			3개
총계				157개

5. 청소년의 행복 수준 및 현황분석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통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표 8 최종 응답자 특성

변인별		사례수(명)	%
전체		24,348	100.0
성별	남	12,711	52.2
	여	11,622	47.7
	무응답 외	15	0.1
학교급	중학교	13,843	56.9
	고등학교	10,505	43.1
경제적 수준	상	7,042	28.9
	중	14,634	60.1
	하	2,578	10.6
	무응답 외	94	0.4
부 학력	중졸이하	777	3.2
	고졸	7,911	32.5
	전문대졸	626	2.6
	대졸이상	9,716	39.9
	잘 모름	5,142	21.1
	무응답 외	175	0.7
모 학력	중졸이하	609	2.5
	고졸	9,642	39.6
	전문대졸	807	3.3
	대졸이상	7,977	32.8
	잘 모름	5,060	20.8
	무응답 외	253	1.0

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구성별 현황 분석 결과

(1) 개인수준: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목적

① 행복감

청소년의 행복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의 1점에서 7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심리적 안녕감은 1점부터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청소년 주관적 안녕감 평균점수는 4.64(SD=0.93)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 평균점수는 3.39(SD=0.45)로 나타났다.

표 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별 행복감(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변인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M	(SD)	M	(SD)
성별	남	4.78	(0.92)	3.44	(0.51)
	여	4.49	(0.94)	3.34	(0.39)
학교급	중학교	4.74	(0.95)	3.42	(0.48)
	고등학교	4.51	(0.91)	3.37	(0.43)
경제수준	상	4.94	(0.92)	3.50	(0.49)
	중	4.58	(0.88)	3.36	(0.44)
	하	4.14	(1.02)	3.32	(0.48)
부학력	중졸 이하	4.50	(1.04)	3.36	(0.48)
	고졸	4.62	(0.92)	3.39	(0.45)
	전문대졸	4.64	(0.95)	3.42	(0.51)
	대졸 이상	4.68	(0.95)	3.43	(0.45)
모학력	중졸 이하	4.39	(1.10)	3.36	(0.50)
	고졸	4.62	(0.93)	3.39	(0.43)
	전문대졸	4.65	(0.89)	3.40	(0.46)
	대졸 이상	4.70	(0.95)	3.44	(0.46)

②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성별,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에 따라 자아존중감 점수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별 자아존중감

변인		N	M	(SD)
성별	남	12,711	3.41	(0.49)
	여	11,622	3.26	(0.39)
학교급	중학교	13,843	3.33	(0.46)
	고등학교	10,505	3.34	(0.44)
경제수준	상	7,042	3.41	(0.45)
	중	14,634	3.31	(0.44)
	하	2,578	3.27	(0.50)
부학력	중졸 이하	777	3.32	(0.47)
	고졸	7,911	3.35	(0.44)
	전문대졸	626	3.33	(0.52)
	대졸 이상	9,716	3.36	(0.44)
모학력	중졸 이하	609	3.3	(0.49)
	고졸	9,642	3.34	(0.43)
	전문대졸	807	3.33	(0.47)
	대졸 이상	7,977	3.36	(0.44)

③ 자아탄력성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에 따라 자아탄력성 점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별 자아탄력성

변인		전체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	3.77	(0.66)	3.98	(0.76)	3.45	(0.67)	3.87	(0.82)
	여	3.63	(0.59)	3.89	(0.74)	3.21	(0.58)	3.79	(0.81)
학교급	중학교	3.73	(0.65)	3.96	(0.76)	3.37	(0.66)	3.86	(0.82)
	고등학교	3.66	(0.61)	3.92	(0.75)	3.29	(0.61)	3.79	(0.81)
경제수준	상	3.88	(0.62)	4.11	(0.74)	3.47	(0.66)	4.05	(0.78)
	중	3.64	(0.62)	3.87	(0.74)	3.29	(0.62)	3.77	(0.80)
	하	3.57	(0.65)	3.87	(0.79)	3.24	(0.63)	3.6	(0.91)
부 학 력	중졸 이하	3.63	(0.70)	3.89	(0.80)	3.29	(0.68)	3.71	(0.90)
	고졸	3.7	(0.60)	3.94	(0.72)	3.32	(0.62)	3.83	(0.79)
	전문대졸	3.71	(0.66)	3.94	(0.78)	3.35	(0.68)	3.85	(0.86)
	대졸 이상	3.75	(0.62)	3.99	(0.75)	3.36	(0.63)	3.9	(0.81)
모 학 력	중졸 이하	3.63	(0.73)	3.87	(0.85)	3.28	(0.71)	3.72	(0.96)
	고졸	3.7	(0.60)	3.95	(0.73)	3.32	(0.62)	3.84	(0.79)
	전문대졸	3.72	(0.65)	3.94	(0.75)	3.36	(0.68)	3.86	(0.81)
	대졸 이상	3.77	(0.62)	4.01	(0.75)	3.37	(0.64)	3.92	(0.80)

④ 삶의 목적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에 따라 삶의 목적 점수는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목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별 삶의 목적

변인		N	M	(SD)
성별	남	12,693	3.71	(1.02)
	여	11,614	3.63	(1.06)
학교급	중학교	13,826	3.7	(1.04)
	고등학교	10,496	3.63	(1.03)
경제 수준	상	7,035	3.89	(1.01)
	중	14,620	3.6	(1.02)
	하	2,572	3.49	(1.13)
부 학력	중졸 이하	775	3.57	(1.08)
	고졸	7,899	3.67	(1.02)
	전문대졸	623	3.75	(0.99)
	대졸 이상	9,708	3.73	(1.04)
모 학력	중졸 이하	606	3.6	(1.06)
	고졸	9,629	3.67	(1.02)
	전문대졸	806	3.75	(1.00)
	대졸 이상	7,971	3.76	(1.04)

(2) 가정, 학교, 지역사회 수준: 생존, 보호, 관계, 성장영역

①생존영역: 경제적 웰빙, 건강/보건

경제적 웰빙 영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87.0%였음. 인구학적 특성별로는 특히 경제적 수준 낮은 집단과 부모의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경제적 웰빙 영역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3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별 경제적 웰빙 영역 평가 결과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부 학력				모 학력			
		남	여	중	고	상	중	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체	87.0	87.5	86.4	89.2	84.0	94.5	87.4	64.6	79.3	85.6	88.7	89.8	78.5	86.3	87.4	90.1
가정환경	87.8	88.4	87.0	90.0	84.8	96.2	88.2	61.9	78.7	86.3	90.1	90.8	79.2	86.9	88.6	91.1
학교환경	84.8	84.9	84.6	87.0	81.7	89.3	84.7	72.6	80.9	83.5	84.5	86.5	76.6	84.4	83.7	87.1

건강/보건 영역에 대해 청소년의 65.7%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특히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이 건강/보건 영역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함.

표 1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별 건강/보건 영역 평가 결과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부 학력				모 학력			
		남	여	중	고	상	중	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체	65.7	67.2	64.1	67.5	63.3	69.2	65.4	58.1	63.6	64.8	66.4	66.5	63.5	64.7	64.7	67.0
가정환경	79.4	81.3	77.4	80.5	78.0	83.3	79.2	69.8	75.0	78.8	80.1	80.5	74.0	78.9	78.6	80.9
학교	65.0	65.9	64.0	69.9	58.5	66.9	65.1	58.8	66.5	63.8	64.8	64.1	64.2	63.5	63.0	64.5
지역사회	52.9	54.5	51.0	51.8	54.3	57.8	51.8	45.5	48.7	51.9	54.5	55.4	52.1	51.8	52.7	56.1

② 보호

여학생, 고등학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거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인식함. 그러나 부의 학력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학교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별 보호 영역 평가 결과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부 학력				모 학력			
		남	여	중	고	상	중	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체	80.9	80.6	77.5	79.9	78.1	81.3	79.3	72.1	77.1	78.4	79.7	79.9	75.2	78.3	78.2	80.4
가정환경	86.0	89.9	81.9	85.5	86.8	89.3	85.8	79.1	80.6	85.5	88.0	88.4	79.6	85.9	87.2	88.5
학교	78.2	75.9	80.6	78.5	77.8	78.2	78.8	74.4	78.1	77.9	77.3	78.4	76.6	77.8	77.7	78.7
지역사회	78.4	81.4	75.3	79.7	76.8	81.4	78.5	69.8	76.0	77.4	79.6	79.3	73.8	77.3	77.0	79.9

③ 관계

남학생, 중학생, 부모의 학력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특징적인 결과는 부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이 가족과의 만족도는 낮았으나, 교사나 지역사회의 성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함.

표 16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별 관계 영역 평가 결과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부 학력				모 학력			
		남	여	중	고	상	중	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체	74.2	76.2	72.1	75.5	72.5	77.2	74.1	66.4	73.0	73.6	74.3	74.7	69.7	73.5	73.3	75.2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부 학력				모 학력			
		남	여	중	고	상	중	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가정환경	89.9	90.5	89.3	90.9	88.6	93.5	90.8	75.2	84.8	89.9	89.5	90.4	83.4	90.2	89.4	90.4
학교	76.6	79.0	74.0	76.8	76.4	78.7	76.6	71.4	76.9	76.3	76.8	76.9	72.7	76.1	76.6	77.6
지역사회	66.0	68.2	63.6	68.4	62.9	69.6	65.5	58.9	65.1	64.9	66.3	66.6	61.9	64.7	64.3	67.3

④성장영역: 교육, 놀이와 여가, 참여

교육환경에 있어 남학생, 중학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지각함. 단, 부모의 학력수준이 중졸 이하의 경우,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은 다른 집단보다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해 만족 수준이 높음.

표 17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 영역 평가 결과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부 학력				모 학력			
		남	여	중	고	상	중	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체	54.0	55.1	52.8	55.6	51.9	58.3	52.9	48.1	48.5	52.5	55.9	56.3	47.8	52.7	55.2	57.4
가정환경	40.7	40.8	40.6	42.0	39.0	46.2	39.1	34.9	33.6	38.9	41.2	45.1	34.5	39.3	42.8	46.4
학교	65.2	67.5	62.6	67.4	62.2	66.8	65.1	60.7	66.1	64.7	66.7	62.3	63.7	64.1	63.6	63.3
지역사회	62.8	64.2	61.3	64.2	60.9	68.1	61.5	55.2	53.2	60.7	67.2	67.0	52.0	61.6	65.5	67.9

놀이 및 여가 영역에 있어 청소년의 51.1%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놀이 및 여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환경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놀이 및 여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별 놀이와 여가 영역 평가 결과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부 학력				모 학력			
		남	여	중	고	상	중	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체	62.5	67.2	57.4	64.8	59.5	68.1	61.4	53.3	54.4	61.3	64.9	63.8	56.0	60.9	62.6	64.4
가정환경	66.3	71.2	60.9	71.5	59.4	69.9	66.0	57.8	65.6	65.5	68.8	64.3	61.5	64.7	64.8	64.7
학교	56.0	63.3	47.9	61.3	48.9	61.1	55.5	43.9	51.5	53.9	54.8	55.2	50.6	53.1	53.5	56.2
지역사회	63.1	67.2	58.6	64.1	61.6	69.2	61.7	54.3	52.7	61.9	66.2	65.5	56.0	61.8	64.0	66.0

참여 영역에 있어 청소년의 62.7%가 참여 영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고등학생 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낮게 평가함. 한편 경제적 수준이 높고,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은 청소년 집단에서 학교환경에 대한 참여 영역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별 참여 영역 평가 결과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부 학력				모 학력			
		남	여	중	고	상	중	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체	62.7	65.3	59.7	64.7	59.9	66.3	62.2	55.1	59.0	61.3	62.7	63.6	58.5	61.4	63.3	64.7
가정환경	89.7	89.3	90.2	89.9	89.5	92.2	90.1	81.3	85.9	89.8	88.9	90.9	85.2	90.3	90.1	91.1
학교	63.6	66.1	61.0	66.4	60.1	67.1	63.2	56.8	60.3	61.6	62.8	64.6	59.9	62.1	66.1	65.3
지역사회	48.3	52.8	43.4	50.8	44.9	52.6	47.5	40.6	44.4	46.8	49.4	49.2	43.9	46.5	47.6	50.9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개발한 후, 청소년의 행복 수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무엇이며, 무엇을 개선 및 발전시켜야 청소년의 행복이 증진되어 청소년이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였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특성별로 다른 관점에서 행복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우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행복수준은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제비교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보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라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에 있어서도 인구학적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 수록 더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남녀간 발달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발달 등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면, 환경적 특성이 이러한 행복의 수준을 가름하는 것인지 등은 보다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논의를 바탕으로 성은모, 김균희 (2013)가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개인 심리적 특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심성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청소년 교육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업중심 교육으로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물론 다양한 심성수련회,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며 자신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부족할 실정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청소년기에 만족한 삶을 살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다양한 환경에도 유연한 대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특성 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강화시켜 주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싸 환경요인을 보다 긍정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략의 제공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전략, 부모와 쉽게 대화하는 전략, 선생님들에 보다 편하게 다가가는 전략 등 다양한 환경개선 프로그램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wee센터, 청소년상담원 등에서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상담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또래 갈등 발생 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이를테면 또래조정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행복'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행복하기 위해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고, 체험활동 등을 하여 왔다. 행복은 마치 어떠한 조건 예컨대 '성적이 높아지면 행복하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등과 같이 어떤 조건들을 갖게 되면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하여 왔다(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2011). 하지만 좋은 조건이 청소년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며, 오히려 청소년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은 행복해지는 연습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자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행복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되는 최고의 만족상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특성을 강화시키고 청소년의 환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1995). KLSSA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16.
- 김명소, 한영석(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의철, 박영신(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9(4), 973-1002.
- 김정연, 정현주(2008).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3, 171-190.
- 신미(2012). 청소년 삶의 질 척도 타당화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1), 163-194.
- 성은모, 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2), 177-202.
- 성은모 (2013). 자유학기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 경기: 화성시청소년수련원.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 이명순(2007). 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리(2003). 청소년기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 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6(4), 193-209.
- 이정미(2011). 한국판 청소년용 다면적 학생 생활 만족척도(K-MSLSS)의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15-133.
-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청소년발달지표 조사 II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김현신 (2012).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I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신현(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 25호.

- 정연홍(2007). **폐광지역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 석사학위논문.
-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순중, 현정수(2011).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척도 개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7(-), 180-207.
- 하정화, 김정란, 이해주(2010). **부산 아동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연구 I**.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2012년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 제연구-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승아, 김혜영, 유연규, 상마직자, 조순주, 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옥경, 김영지 (2011). **청소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혜원(2011).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3), 1-26.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Lee, B. J. (2013). **Mapping domains and 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 unpublished.
- Lyubomirsky, Sheldon(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http://sonjalyubomirsky.com/wp-content/themes/sonjalyubomirsky/papers/LSS2005.pdf>에서 2013년 5월 30일.
- Suh, E. M. (2007). **Downsides of an overly context-sensitive self: Implications from the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75, 1321-1343

UNICEF. **Comprehensive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reporting tool.**

<http://www.childfriendlycities.org/en/research>에서 2013년 2월 21일.

UNICEF. **The child friendly city governance checklist.**

<http://www.childfriendlycities.org/en/research>에서 2013년 2월 21일.

발표 4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이 경 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항 섭

(국민대·부교수)

그레이스정

(서울대·부교수)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환경의 변화추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결코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의 변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의 지속, 취업 불확실성의 지속 등은 청소년 세대 자체의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행복한 미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 전망하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5년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 연구는 5년이라는 비교적 단기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이다. 수십년 후를 대비하여 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 전망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기현, 2012).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계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하여 23년~24년 후를 전망하는 2030년 미래전망 연구를 일차적으로 대규모로 수행한 바 있다(김기현, 장근영, 강홍렬, 2006; 김기현 외, 2007).

이번에는 선구적으로 수행된 2030 미래전망 연구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기관 고유과제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개년에 걸쳐 26년~27년 후를 전망하는 2040년 미래전망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번 2040 미래전망 연구는 분야별로 나눠 대규모로 진행된 2030 미래전망 연구가 수행된 지 7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0년 후인 2040년도를 전망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연구라

2030 미래전망 연구와 일부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¹²⁾ 그러나 이번 2040 미래전망 연구의 일부 연구결과가 기존 2030 미래전망 연구결과와 중복된다면 그 자체가 기존 2030 미래전망 연구의 타당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고, 또 일부 연구결과가 기존 2030 미래전망 연구결과에 비해 새로운 것이라면 그것 역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며, 1차년도인 2013년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보고, 2차년도인 2014년에는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차별 세부 연구내용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I-1>과 같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년도인 올해 2013년에는 우선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을 마련하고, 둘째,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며, 셋째,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의 타당성과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며, 넷째,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정책자문회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차년도 (2013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 제시를 위한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 마련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정책자문회의 개최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제시
2차년도 (2014년)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에 대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전문가 FGI 등 검토 • 지난 20년간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 주요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 분석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 마련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FGI 등 검토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에 대한 정책자문회의 등 개최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 제시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12)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번 연구에서는 가급적 1차 2030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이론적 논의

미래연구진행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첫째, 환경관찰을 통해 핵심트렌드들을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관찰해야 할 환경을 나눠 설정하여(예를 들면, STEEPV : Social, Tech, Economics, Environmental, Political, Value) 각 차원의 환경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중요 트렌드들을 밝혀낸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둘째, 각 차원별로 추출된 핵심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한다. 첫 번째 과정에서 핵심트렌드들을 발굴해내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발굴된 핵심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예측해본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셋째,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이 단계에서는 핵심트렌드들의 예측이 이뤄진 후 이 예측들을 조합하여 가능한 여러 상황을 상정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한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넷째,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비전, 전략, 계획 등을 수립한다. 앞의 3단계까지가 '있음직한 미래'였다면, 이 단계에서는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하여 비전, 전략, 계획 등을 수립한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절차를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년도인 올해 2013년에는 우선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관찰해야 할 환경을 인구구조, 개인의 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의 여섯 차원으로 나눠 설정한 후,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각 차원에서 6가지 메가트렌드들을 추출하였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그리고 이 6가지 메가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보았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인접하고 있는 환경 수준인 미시환경을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의 다섯 측면으로 나눠 하위유형으로 설정한 후, 앞에서 살펴 본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각 미시환경 하위유형별로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보았다.

다음으로 앞에서 추출한 핵심트렌드들인 메가트렌드들과 미시환경 트렌드들의 출현가능성에 대해 미래사회, 사회변동, 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추출한 핵심트렌드들인 메가트렌드들과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청소년 안전·보호(아동학대, 아동실종, 안전사고, 학교폭력,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업소, 인터넷중독, 성보호 등), 비행·범죄(비행예방, 범죄예방, 교정교육, 피해자지원 등), 복지(취약계층청소년지원(가출청소년지원, 학업중단청소년지원, 북한이탈·다문화청소년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역아동센터운영, 드림스타트사업운영, 디딤씨앗통장지원, 가정보호지원, 시설보호지원, 아동급식지원 등), 상담지원(상담서비스, 청소년전화 HelpCall388, 청소년동반자 YC프로그램,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CYS-Net, 취약청소년자립지원 두드림존 DoDreamZone 등)), 건강(체격·체력, 영양·비만, 음주·흡연, 정신건강 등), 교육(학업성취, 학교생활만족, 교육복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농산어촌학생교육지원, 다문화학생교육지원, 탈북학생교육지원 등) 등), 진로·직업(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직업역량 개발, 일자리 마련, 고용촉진 등), 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교류활동지원 등), 권리·참여(권리증진, 참여활성화)의 청소년 정책분야별로 향후 정책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지에 대해 각 분야별 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2b; 관계부처 합동, 2012). 정책영역별 구분은 2012 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2012b),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2)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세부화시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인 내년 2014년에는 추출된 핵심트렌드들을 조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비전, 전략, 과제 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3-1. 트렌드분석 : 메가트렌드

이 장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 변수들의 메가트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주요 변수로 아래 6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6가지 차원의 변수의 설정은 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이다(여성가족부, 2012b; 여성가족부, 2013; 통계청, 2011b; 통일부, 2013; 통계청, 2011c).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고령화와 청소년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수십년간 이러한 고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청소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고립사회로의 전환과 개인주의의 강화이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1a). 이때 고립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사회화 과정에서의 고독감이다. 고독감은 주로 노년층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에 못지않은 고독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서구의 개인주의가 한국의 경쟁사회적인 특징과 연동되면서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관계에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네트워크 양식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Maffesoli, 1979; Maffesoli, 1997). 이성과 합리성이 모든 관계의 근원이었던 근대를 지나 탈근대로의 전환기에 들어오면서 한국사회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분출되고 있다. 특히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이미지를 기제로 하여 감정들이 분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계약이 중심이 되던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관계가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을 지닌 부족주의를 나타나게 하고 있다.

사회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성원들이 그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김상욱 외, 2009; 국제투명성기구, 2011). 이 판단의 가장 큰 준거가 바로 그 사회의 공정성이다. 한국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 즉 사회자본은 한국청소년의 미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공동체의식, 사회통합 등이 정치경제를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데 이에 공정성 인식, 신뢰, 사회자본이 중요하다. 한국 청소년들의 미래 사회자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이다.

사회구조에서는 1997년을 전환점으로 이제 한국사회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양극화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한다(통계청, 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이때 양극화는 단순한 소득수준 등 양적 지표상의 양극화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상대적 박탈감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이 양극화는 한국사회에서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을 갈라놓는 경계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기술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인터넷,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들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각년도; Beck, 1992). 인터넷은 199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후 한국사회성원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라온 세대이기에 이들의 미래의 삶에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맺기의 미디어, 소위 소셜미디어가 사회성원들, 특히 청소년들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같은 환경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3-2. 트렌드분석 : 미시환경 트렌드

이 장에서는 앞의 메가트렌드들에 대한 분석에 이어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 등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미시 환경영역별로 어떠한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가족환경

향후 청소년 성장발달의 중요한 미시환경인 가족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본 중요한 메가트렌드인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등과 관련하여 가족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첫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화로 인해 독특한 노인문화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세대간 가족 관계의 새로운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부양역할이 점점 더 사회복지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면서 세대 간 관계적 상호작용의 양상이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독특한 노인문화가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버타운 및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들의 생활문화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인 부모 및 조부모의 역할 재정립 및 가족관계 상호작용의 재정립이 미래 가족의 새로운 과제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셋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다양화로 인해 미래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감지된다. 다양한 구조의 가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규범적으로 여겨졌던 가족의 필수조건 및 가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미래 청소년들의 인식이 보다 더 유연하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 여성가구주 가정과 조손가구의 증가로 인한 미래 청소년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여성가구주 가구와 조손가구 증가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미래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의 가족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가출 등 일탈 행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여섯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기능의 약화가 감지되고 있다. 부부와 자녀, 노인부부,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핵가족 비중 증가 및 확대가족 비율의 감소로 가족내 돌봄기능의 약화가 예상되며 부모 부양 및 양육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곱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가족내 청소년의 고립감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2) 또래환경

미래 청소년 성장발달의 중요한 미시환경인 또래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본 메가트렌드들인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등과 관련하여 또래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첫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다문화적인 또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점차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앞으로 시급할 것으로 예견된다.

둘째,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의 또래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미래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친밀감을 나누고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 보다는 현재적 필요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즉, 자신들의 사회세계를 구축하는 성격을 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의 변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또래간 집단따돌림(왕따) 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3) 학교환경

향후 미래 청소년 성장발달의 중요한 미시환경인 학교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본 중요한 메가트렌드인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등과 관련하여 학교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첫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 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교육과 사회적 역량 교육의 강화가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둘째,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셋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4) 매체환경

향후 청소년 성장발달의 중요한 미시환경인 매체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본 중요한 메가트렌드인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등과 관련하여 매체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첫째,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차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공유하는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과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이성에 기초한 행위를 벗어난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과거의 수직적 권위에 기초한 네트워크나 과거의 학연, 지연과 같은 지속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여러 사회참여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 등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솔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5) 진로환경

향후 미래 청소년 성장발달의 중요한 미시환경인 진로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본 중요한 메가트렌드인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 사회와 위험 증가 등과 관련하여 진로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첫째,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근로의 도입, 사회적 기업의 확충 등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취업난, 청년실업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몰리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임시직인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1. 전문가 조사결과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에 대한 연구진들의 연구결과에 대해 12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라고 묻은 다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우선 메가트렌드의 결과부터 살펴보면, 연구진에서 설정한 메가트렌드가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향후 26년간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환경트렌드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환경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가족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또래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학교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매체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진로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

구분	트렌드	평균	표준 편차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4.66	.49
	2. 개인인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3.91	.66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3.58	.66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3.66	.88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4.08	.99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4.33	1.15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3.58	.66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4.08	.79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3.83	.71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4.00	1.0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3.58	1.08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인식 및 기능의 약화	4.08	.6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3.16	1.19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4.00	.85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3.75	.96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3.66	.65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3.91	.5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3.83	.93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4.08	.79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4.58	.66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4.08	.51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4.00	.60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 행위의 증가	3.91	.90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3.91	1.16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4.00	.73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3.66	.88

4-2. 전문가 조사결과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정책적 중요성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연구진들의 연구결과에 대해 안전·보호, 비행·범죄, 복지, 건강, 교육, 진로·직업, 활동, 권리·참여 등 8개 청소년정책 분야별로 각 12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각 정책분야별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정책분야별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정책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라고 묻은 다음,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에 대해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후 각 정책분야별 전문가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8로 나눈 다음 정책적 중요성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메가트렌드의 결과부터 살펴보면, 연구진에서 설정한 메가트렌드가 정책적 중요성에서도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수립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환경트렌드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환경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가족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수립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또래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수립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학교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수립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매체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수립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진로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수립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정책적 중요성(전체)

구분	트렌드	평균	표준 편차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4.32	.71
	2. 개인인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4.00	.90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3.77	.86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3.88	.83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4.44	.75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4.25	.69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3.67	.93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3.70	.96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3.72	.82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4.28	.77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4.07	.78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인식 및 기능의 약화	3.59	.97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3.80	.88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4.19	.74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3.84	.84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4.03	.89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4.37	.72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3.92	.93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4.04	.85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4.14	.79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3.90	.93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3.84	.90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솔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 행위의 증가	4.16	.87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3.78	.91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3.96	.91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3.75	.98

5. 결론

이 연구의 결과 최종 제시된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은 다음과 같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 문화에의 도전 증가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이 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단기 전망적 연구가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했을 때의 거시적 미시적 환경트렌드를 추출한 장기 전망적 연구이므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할 때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메가트렌드와 미시환경 트렌드를 모두 추출하여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시나리오 방법을 통한 미래 청소년 정책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할 때 거시적인 환경요인과 미시적인 환경요인 모두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의 다섯 측면의 미시환경 영역으로 나눠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시나리오 방법을 통한 미래 청소년 정책 전망을 제시할 때 청소년들에게 인접하여 영향을 미치는 미시환경별로 나눠 요인을 고려해볼 수 있게 되었다.

세미나자료집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전망

인 쇄 2014년 3월 10일

발 행 2014년 3월 1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